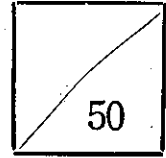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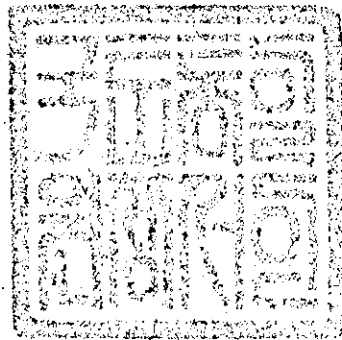


國統 74-1-18



日本の 軍事政策 및 戰略과 韓國의 安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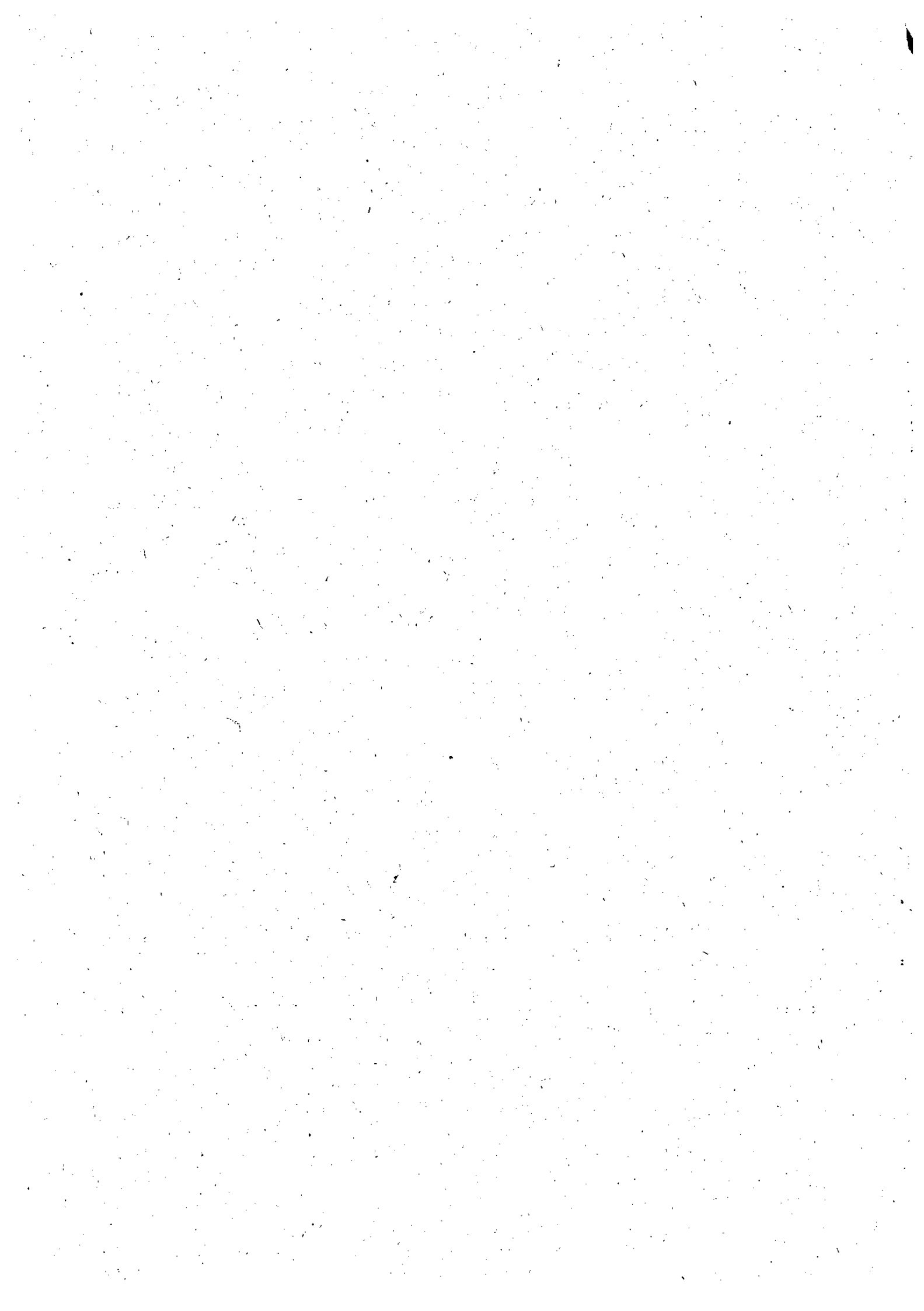
1974. 7.



이 報告書는 国土統一院 74年度 上半期 学
術用役に 関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7. 31.

研究責任者：韓 永 周



目 次

序 論	3
第 1 章 綜合情勢와 美国의 对亜細亞 政策	7
第 1 節 綜合情勢	7
1. 國際情勢	7
2. 韓半島의 周辺情勢	11
3. 北韓의 軍事動向	12
第 2 節 美国의 对亜細亞 政策	17
1. 「닉슨·독트린」	17
2. 極東戰略	20
第 2 章 日本의 軍事政策과 軍事戰略	23
第 1 節 軍事政策	23
1. 美日安保体制	23
2. 国防基本政策	24
第 2 節 軍事戰略	26
1. 「三矢研究」와 「부르한作戰計劃」	26
2. 防衛戰略	28
第 3 節 軍事力의 生成過程과 将来	30
1. 軍事力의 生成過程	30
2. 防衛力整備計劃과 戰略的意義	34
3. 軍事力의 将来	40

第3章 韓日軍事協力關係의 可能性 診斷	45
第1節 韓日兩國間의 安全保障上의 相關關係	45
1. 地政學的 條件	45
2. 美日安保條約과 韓國安保	47
3. 韓美相互防衛條約과 日本安保	47
4. 日本의 軍事力增強과 韓國安保	48
第2節 韓日軍事協力關係의 歷史的 推移	50
1. 韓日兩國關係의 胎動段階	50
2. 韓日國交正常化 段階	51
3. 非美國化政策 段階	53
第3節 韓日軍事協力關係의 問題點 및 展望	55
1. 問題點	55
2. 展望	56
結 論	69

序 論

國際情勢는 비록 冷戰에서 共存으로 다시 協商의 時代로 變遷되고 있으며 緊張緩和의 趨勢에 있다고 보겠으나 國家利益을 追求하는 나머지 惹起될 수 있는 局地戰의 威脅은 尚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極東에 있어서의 中·소의 國境紛爭, 소련 極東艦隊의 進出, 韓半島內의 숨어 있는 緊張등은 不安의 要因을 胚胎하고 있는 狀態라 하겠다.

특히 韓半島에 있어서 7·4 共同聲明에 의거한 南北韓의 對話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金日成의 全韓半島 赤化統一 路線은 不變이며 또한 「닉슨·독트린」에 의거한 一部 駐韓美軍의 撤収와 對韓軍援의 減少등은 바람직한 現象이 아니다.

亞細亞·太平洋地域에 있어서는 歐洲의 NATO와 같은 集團防衛體制를 이루지 못하고 美國과 더불어 韓國, 比律賓, 台灣등, 自由諸國이 雙務防衛條約을, 日本은 相互協力, 安保條約을 締結함으로써 平和를 維持하고 있다.

이들 自由國家들은 共同의 防衛對象國을 가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各國의 國內事情, 國家利益의 相異性 때문에 集團防衛體制를 形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日本의 憲法은 交戰義務를 負擔시키는 同盟이나 條約은 否定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戰亂時 駐日美軍의 韓國으로의 출동에 따라 조성될 수 있는 日本내의 治安維持를 위해 美占領軍에 의하여 創設된 警察予備隊는

防衛力조정計劃을 거듭하면서 兵力과 裝備가 증강되고 또 自衛隊로 改編됨으로써 세계有數의 非核戰力を 갖추고 「直接侵略 및 間接侵略에 대하여 日本을 방위하는 것을 주된 임무」(自衛隊法 第三條)로 삼는 軍事力으로 發展되었다. 그러나 日本은 基本的으로 美國軍事力의 보호하에 있다.

日本은 美國의 戰略核의 우산을 絶對적으로 必要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非核攻擊을 받더라도 美軍事力의 來援을 必要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戰後 아시아지역에서 共產勢力擴張의 抑制과 저지에 결정적인 기여와 역할을 담당하여온 美國은 越南에서의 苦戰을 계기로 아시아에서의 기존 諸公약을 사실상 整理縮少하는 非美國化政策을 추진하고 있고 소련은 中共에 대한 견제와 美國의 後退에 따라 조성될 수 있는 勢力공백의 罅를 위하여 海軍力을 包含한 이 地域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九全大會를 전후하여 文革의 混亂을 정리한 中共은 國際的 高립을 자초한 造反外交를 청산하여 對外的 影響力 擴大에 注力하고 있는가 하면 蘇聯과의 可能的 軍事的 衝突에 對備하여 美國과의 極的 和解마저 推進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적어도 政治面에 있어서의 多極的 秩序의 展開는 強力한 經濟力을 背景으로 한 日本의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役割을 強要하게 됨으로써, 日本은 從前과 같은 經濟中心의 政策만을 追求하고 軍事問題를 包含한 對外問題를 外面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狀況을 맞이한 日本이 어떠한 戰略構想下에 어떠한 性格과 어떠한 規模의 軍事力을 保有하게 될 것이며, 또 對外的으로 어떠한 軍事協力關係를 摸索하게 될 것인가는 日本의 將來뿐만 아니라 韓國을 包含한 아시아제국의 共同關心事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最近의 北韓 軍事動向에 비추어 韓日間의 軍事的 意義를 갖는 分野에서의 歷史的推移와 더불어 韓國의 安保를 韓日軍事協力關係를 中心으로 檢討해 본다.



第1章 綜合情勢와 美國의 對亞細亞政策

第1節 綜合情勢

1. 國際情勢

第二次 世界大戰後 4半世紀 동안 東西의 冷戰體制로 繼續되어 온 美蘇의 兩極體制時代는 지나가고 多極化時代가 닥아 왔다. 그것은 美蘇의 힘에 의한 平和維持時代와는 달리 群小國들이 저마다 自己主張을 發言하는 混線의 對話時代로 轉換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國際政治社會의 樣相도 크게 변모되어가고 있다. 過去에는 美蘇兩大國의 理想에 따라 그 友邦이나 衛星國家들이 追從하였었다. 그러나 이 兩大國의 힘이 相對적으로 減少되고 平準化되고 보니 超強大國의 理想이나 使命 또는 그 神秘力마저 減滅되고 群小國들의 現實的인 利害와 打算이 크게 대두되어 「이데오로키」의 政治時代로 부터 「파워」政治時代로, 꿈의 政治時代로 부터 利益의 政治時代로, 다시 理想의 政治時代에서 現實的인 政治時代로 移行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兩極體制에서 多極體制 즉 多圓化體制로 變했다는 것은 現在의 世界秩序가 美蘇의 兩極體制를 完全히 離脫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核武器의 生産力을 비롯한 各分野에서 그 狀況이 相當히 修正되었다는 것이기 戰略的 軍事面에서는 超強大國으로서 兩極의 要因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在의 世界

秩序는 政治的多圓화와 軍事的兩極化體制가 形成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1973年은 美·中共, 美·蘇關係의 改善을 基軸으로하여 越南戰 妥結 東西 歐羅巴間의 和解推進等 全般的인 國際情勢는 緊張緩和의 方向으로 크게 推進된 해라고 볼 수 있으나 下半期에 들어가서는 中東戰의 再發, 石油波動을 中心으로한 世界的 「에너지」危機等 國際政治上에 새로운 不安要因이 發生하였고, 이와 關聯하여 國家間에 潛在해 있던 分裂要因이 各國의 國家利益 優先 追求政策에 따라 表面化 되었을 뿐만 아니라 第3勢力으로서의 中小諸國이 集團勢力化하여 大國主義에 反撥, 그들의 發言權을 向上시키려는 傾向이 내두된 해라고 特徵지을 수 있을 것이다.

即 1973年의 國際情勢는 緊張緩和와 平和共存 繼續이 그 主軸을 이루고 있으나, 局地戰 勃發, 「에너지」波動, 同盟關係의 龜裂 第3勢力의 集團勢力化等 새로운 不安要因이 내두된 것으로 評價될 수 있다.

全般的인 國際情勢展望으로서 國際情勢 基本潮流로는

(가) 世界均衡 秩序維持를 위한 強大國 中心의 現實主義政策이 繼續 推進됨에 따라 脫「이데오르기」的인 緊張緩和, 平和共存 및 現狀固定化 趨勢가 一般的으로 國際情勢를 支配하여 安定勢가 繼續할 것이다.

(나) 이와 같은 脫「이데오르기」的인 緊張緩和 趨勢는 從來의 同盟關係를 退色케함은 勿論 實利追求優先의 새로운 國際關係를 形

成케 할 것으로 보인다.

(다) 資源確保를 위한 各國의 独自の인 外交攻勢가 치열해질 것으로 予想되며 이를 利用한 第3勢力圈의 國際政治面에서의 強大國 牽制機能이 強化될 것으로 보인다.

(라) 世界的 緊張緩和 趨勢에도 不拘하고 各國間의 利害關係 衝突에 따른 局地紛爭의 突發可能性은 繼續 潛在할 것으로 보이며 國際秩序 改編課程에서 不安要因이 많은 亞細亞, 中東地域에서 그 可能性이 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強大國關係로는

(가) 國際政治의 多極化 現狀에도 不拘하고 美蘇의 軍事的 優位에 立脚한 世界秩序 維持 努力에는 變함이 없을 것이다.

(나) 그러나 中共, EC, 日本은 이와 같은 美·蘇의 世界秩序 支配에 대한 牽制努力을 展開하여 既往의 美·日, 美·EC間의 同盟, 結束關係가 退色해질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油類波動에 따른 日本 및 西歐의 經濟的 體質 柔弱性으로 因해 이들 國家와 美國과의 關係가 冷却될 可能性이 있다.

(다) 中蘇紛爭은 國境紛爭, 理念紛爭 및 「헤게모니」爭奪等 諸般 事件으로 보아 長期間 繼續될 것으로 보이나 또 한 熱戰이 일어날 可能性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 中共과 蘇聯은 모두 對美·日關係를 好轉시킴으로써 相互 牽制策을 強化할 것이며 蘇聯이 아세아集團 安保構想에 立脚하여 親蘇 亞細亞 블록形成을 繼續 追求할것임에 반하여 中共은 柔軟,

溫健外交로서 亞細亞諸國 侵透를 企圖할 것이다.

한편, 美·日은 이와같은 中·蘇對立을 利用하여 兩國에 대한 等距離外交를 繼續 展開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東西歐羅巴 關係로는

(가) 歐羅巴 安保協力會議 및 東西相互 均衡減軍會議의 進展과 더불어 東西 歐羅巴關係는 보다 安定化되고 나아가서는 相互協力關係가 緊密해 질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따라 東西關係는 「나토」, 「와르샤와」간의 相互 對立關係보다 「이시」, 「코메콘」간의 協力關係로 漸次 變化될 것이다.

弱少國 動向으로는

(가) 弱少國 特히 原資材 保有國들은 「아랍」諸國의 石油政治 武器化의 成功을 契機로 하여 地域主義에 立脚한 協調體制의 追究摸索으로 國際政治에서의 發言權 乃至 影響力을 增大시키게 될 것이다.

(나) 國際政治의 多極化에 따른 勢力 再編課程에서 弱少國은 既存의 同盟關係에서 벗어나 實利를 極大化시키는 政策을 보다 露骨化 시킬 것이며 또한 強大國의 紛爭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中立化를 摸索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韓半島의 周辺情勢

國際情勢가 長期間에 걸쳐 冷酷하였던 東西兩陣營의 冷戰으로 부터 共存의 길이 摸索되고, 多極化時代로 轉換해감에 따라 多少의 緊張緩和의 趨勢를 보이고 있다.

1972年 2月 닉슨大統領의 北京訪問과 同年 5月の 모스크바 訪問은 歴史的인 새로운 協商의 時代로의 轉換點이 되었다고 하겠다.

日本에서는 1972年 7月 對美一辺倒의 佐藤政權을 引受한 田中首相은 곧 닉슨大統領의 뒤를 이어 同年 9月 北京을 訪問하였으며 電擊的인 日·中共 國交正常化의 길을 터놓았다.

이와같이 激動하는 周辺情勢에 발을 맞추어 韓半島內에서도 7.4 南北共同聲明을 發表하기에 이르렀고 南北韓의 對話가 始作 되었다.

그러나 極東亞細亞에 있어서의 4極體制 - 美·소·日·中共 - 의 利權은 相互相衝된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勢力均衡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現狀이다. 이는 極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世界到處에 緊張의 要因은 尚存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美·中共接近과 美·소의 關係改善, 美日間の 水平的 關係形成과 日·中共의 國交正常化, 그리고 日·소間的 平和條約締結을 위한 接近試圖, 日·北韓間的 接觸擴大 展望 등은 極東의 새로운 秩序確立을 肯定的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더욱이 中·소의 國境紛爭은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4極中 가장 深刻한 緊張要因으로 보는 것이다.

韓半島를 위요한 情勢展望으로는

(가) 世界的 緊張緩和의 構造化를 追究하는 強大國의 大國主義政策은 韓半島에 繼續 影響을 미칠것이다.

(나) 이에 따라 韓半島周辺 強大國은 韓半島 現狀維持와 緊張緩和의 基調下에 局地問題는 當事者間에 解決토록 促求하는 政策을 繼續追究할 것이며 特히 日本은 南北韓에 대한 等距離 外交를 펴나가게 될것이다.

(다) 이와같은 狀況은 우리에게 南北對話를 強要하는 對外的 壓力으로 作用할것이며 이를 利用한 北韓의 策動은 激化될 것으로 보인다.

3. 北韓의 軍事動向

北韓은 72年 12月 27日 最高人民會議 5期 1次會議에서 새로운 社會主義 憲法을 採択함으로써 金日成을 頂點으로 하는 獨裁體制를 加一層 強化하였으며, 이와같은 唯一體制下에서 住民들의 共產主義 思想教育을 더욱 強化하여 南北對話에 따른 住民들의 思想動搖 抑制와 6個年經濟計劃의 早期 目標 達成 強行을 企圖하여 왔으며, 軍閥係 各種 記念行事를 通하여 軍事力 強化와 4大 軍事路線의 貫徹를 再強調하고 特히 10, 12의 人民軍 指揮官 및 政治要員 熱誠者會議에서는 武力統一이라호 不辭하겠다는 挑發적이고 好戰的인 態度로 나왔으며 各軍의 有機的 攻防體制 完備, 訓練增強 및 新武器 導入 등으로 戰斗力 增強에 腐心하는 한편 10月부터는

西海에서 韓國의 北方 限界線을 侵犯하는 挑撥事態를 惹起시켰다.

北韓은 南韓 革命이 祖國統一의 先決條件이라는 그들의 對南 革命 路線 旗幟下에 南北對話와 對南工作을 併進시키는 政策을 取하여 왔다. 南北對話에 있어서 北韓은 實質적으로 實現不可能한 軍事 5個項, 美軍撤収면 自進 20萬 減軍, 金日成의 所謂 平和統一 5大 綱領等 提議로 平和 宣傳攻勢에 注力하는 한편 對韓國 非難을 加熱化시켜 韓國 內部 體制의 攪亂과 反政府勢力形成에 腐心하여 왔으며 급기야 73.8.28에는 김영주가 聲明을 發表하여 南北 對話의 事實上的 中斷을 宣言하였다.

韓國의 南北對話 再開 提議로 南北對話再開 努力이 進行中이나 北韓은 6.23 宣言 取消, 反共法違反者 釈放, 大民族會議召集 要求等 不當한 提案을 提示함으로써 南北對話에도 不拘하고 그들의 對南 基本革命路線에 妥함이 없음을 立証해 주었다.

一方 北韓은 昨年 3月以後 武裝間諜 侵透를 再開하고 間諜의 第3國 迂廻侵透를 增加시켜 南韓 地下黨 組織工作과 포섭자帶同 越北等 基本 工作活動을 繼續하여 왔으며, 10月 23日以後 北韓艦艇은 西海 北方 警備 限界線을 頻繁히 侵犯하여 韓半島에서의 緊張을 高潮시켰는바, 이는 南韓의 不安과 緊張을 造成하고 아울러 南北對話에서의 北韓側 主張을 貫徹시키기 위한 故意的인 挑發로 꼽이할 수 있다.

특히 北僞는 7.4 南北共同聲明을 一方的으로 유린한후 各種 米사 일과 新銳航空機 탱크 渡河裝備等 現代裝備를 大量으로 導入, 戰爭

準備에 狂奔하고 있다.

北傀의 戰爭準備狀況은 ① 陸軍의 境遇 24個 步兵師團과 4個旅團 그리고 이를 支援하는 砲兵 및 탱크部隊로 構成된 48萬의 地上軍을 確保, 火力으로는, 프로그 5 地對地誘導彈을 비롯, 탱크 1千 1百餘台, 迫擊砲 野砲 對空砲等, 各種砲 1萬5千門을 保有, 火力과 機動性이 顯著히 增強되었다. ② 海軍은 지난 1年동안 潛水艦 驅逐艦 魚雷艇 高速誘導彈積載艦等을 導入, 現在 東西海에 4百餘隻의 艦艇을 保有하고 있으며 이가운데는 오사 및 코마級 誘導彈을 積載한 高速艇 18隻과 潛水艦 6隻이 包含되어있다. 北傀는 特히 東西로 나뉘어진 海軍力의 補強을 위해 西海艦隊司令部를 新設했으며 北傀艦艇의 殆半은 高速機動力을 갖고 있어 沿岸作戰에 充分한 能力을 發揮할 수 있으며 最近에는 沿岸侵透用 小型艦艇도 導入中에 있다. ③ 空軍力은 昨年에 90台的 MIG戰鬥機를 비롯 空中侵透用 航空機 AN 2機 1百台等 2百餘台를 새로들여와 現在 MIG 21 및 SV 7等의 新銳機를 包含, 約 8百50台的 航空機를 保有하고 있다.

最近 北韓의 軍事動向을 綜合評價하면 다음과 같다.

가. 地上軍

- (1) 攻勢에 充分한 步兵師團 保有
- (2) 機動 및 火力裝備의 增強
- (3) 攻擊用武器의 前方配置
- (4) 陣地要塞化 完了

(5) 特殊戰 能力向上

나. 海 軍

- (1) 指揮體制 強化
- (2) 東·西海 海軍勢力의 均衡化
- (3) 艦艇勢力 增強
 - (가) 奇襲攻擊 能力 強化
 - (나) 沿岸作戰 能力 強化
 - (다) 外海作戰을 위한 準備
 - (라) 特殊戰 能力 保有

다. 空 軍

- (1) 機動轉換으로 攻防 能力 增加
- (2) 防空體制 및 能力 強化
- (3) 航空基地 強化
- (4) 特殊戰 支援 能力 向上

라. 軍事力 增強 特徵

- (1) 質的增強
- (2) 攻勢作戰用 武器導入
- (3) 戰略戰術 및 教理에 適應하는 部隊編組

마. 合同 上陸作戰 및 特殊戰能力向上

바. 戰力配備를 攻勢的으로 轉換

사. 動員態勢의 完備

北韓軍事情勢展望으로는 北韓은 金日成 唯一權力體制를 基盤으로한 社會主義 建設促進을 強化시켜 나갈 것이며, 4大軍事路線의 繼續 強行 및 特攻戰力の 實戰化를 達成하여 政治目的의 局地的 軍事挑發을 增大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와같은 北韓의 戰略 遂行課程에서 南韓情勢의 極度의 混亂等 与件이 造成되었다고 判斷時에는 首都圈을 危脅하는 全面 熱戰도 試圖할 것으로 判斷된다.

가. 戰線活動

(1) 戰爭態勢의 補強 點檢

(2) 關心을 西海로 集中시킨 가운데 特定地域에서 挑發敢行 可能性 增大

나. 飛行活動

(1) DMZ를 沿한 近接偵察 活動을 積極化하면서 必要時에는 DMZ를 越線 偵察, 우리의 反應을 測定 또는 挑發口實을 摸索

(2) 事態 推移에 따라 韓國 東·西 沿岸 淸속히 偵察活動을 試圖

다. 非正規戰

(1) 合法迂廻 侵透 및 直接侵透 併行

(2) 臨海工業團地의 奇襲, 破壞, 要人暗殺等의 果敢한 工作 試圖

(3) 陸上, 海上, 空中의 多樣한 侵透 企圖

라. 心理戰

(1) 反政府 鬪爭先導에 置重, 維新體制弱化 및 崩壞劃策

(2) 心理戰 樣相의 積極化, 惡辣化

結論的으로 앞으로 北傀의 軍事挑發은 더욱 惡辣化, 積極化가 予想되며, 金浦半島, 休戰線 其他 休戰線 隣接地域等 予想치 않은 場所에서 새로운 挑發이 展望되며 이와같은 北傀의 戰略遂行課程에서 好機를 捕捉하거나 事件이 造成時에는 首都圈을 危脅하는 全面 熱戰도 試圖할 것으로 判斷된다.

第 2 節 美國의 對亞細亞 政策

1. 「닉슨·독트린」

美國의 70年代 對亞細亞 政策의 基調는 「닉슨·독트린」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1969年 7月 大統領으로 就任한지 半年만에 東南亞諸國 訪問길에 오르면서 「괘」島에서 이른바 「괘」 宣言을 發表하였다.

닉슨大統領의 새로운 亞細亞政策에 關하여 具體적으로 說明하였으며 이것이 「닉슨·독트린」으로서 「亞細亞人에 의한 亞細亞問題의 負擔」을 내 세운 것이다. 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가. 美國은 今後 越南戰과 같은 계리라戰 或은 民族解放戰爭과 같은 型態의 軍事介入에는 참가할 政策을 堅持한다.

나. 美國은 亞細亞諸國間에 條約上의 約束은 지키겠으나 大國이 「核」으로 威脅을 加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內亂이나 外部의 直接侵略에 對하여 各各 그 該當國들이 먼저 對処할 것을

期待한다.

다. 美国은 太平洋国家로서 繼續 이 地域에서 重要な 役割을 하겠으나 亞細亞의 問題地域에 直接 軍事的 或은 政治的으로 깊이 들어갔든 이제까지의 方法을 삼가 하고 自助의 意思를 갖고 있는 亞細亞諸國의 自主的行動을 側面에서 支持, 支援한다는 보다 적은 役割을 하기로 한다.

라. 亞細亞諸國에의 援助는 經濟援助를 中心으로 이에 있어서도 可及的이면 多數國家間 方式에 重点을 두며 美国이 一國과의 사이에서 經濟的, 政治的關係를 너무 깊게 하지 않으려는 方向을 維持한다.

마. 亞細亞諸國이 바로 相互安全保障을 위한 軍事機構를 만들것으로는 判斷하지 않으나 5年~10年後의 將來에는 實現이 期待된다.

이와같은 基本構想으로 各國의 「自助」를 불러 일으켜서 美国自身의 負擔을 줄여 보자는 것이다.

닉슨大統領은 亞細亞外交政策을 그의 「1970年代의 美国의 外交政策 - 平和를 위한 새로운 戰略」에서 더욱 뚜렷이 定立하였다.

「一世代에 있어서 美国民은 세차레나 太平洋을 건너서 亞細亞에서 戰爭하기를 要請받았다. 戰后期에 있어서도 이처럼 精力의 消費를 必要로한 地域은 世界 어느곳에서도 없었다. 이처럼 高價이며 犠牲을 要한 곳은 아무데도 없다. 1970年代에 있어서의 美国의 亞細亞政策은 이 犠牲의 敎訓에 基礎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第1로 우리는 亞細亞와 關係를 維持한다. 우리는 太平洋國家이다. 萬一 亞細亞에 平和가 없으면 우리에게도 平和가 거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第2로 第2次世界大戰后의 建設的인 民族主義와 經濟的發展은 亞細亞에 있어서 新興國家를 內面에서 強化해 왔다.

亞細亞에 있어서의 友邦, 特히 日本은 同地域의 平和的發展의 責任을 점점 大幅的으로 分擔할 수 있는 立場에 있다.

第3으로 同地域에서 發生하고있는 變化는 우리들의 介入의 性格을 變更시킬 수 있다. 크나큰 代價를 支払하여 一時 美國이 負擔하고 있는 責任을 이제야 分擔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

이와같이 美國의 對亞細亞 政策은 可及的이면 「亞細亞의 問題, 즉 戰爭은 亞細亞人의 손으로」處理케 함으로써 美國은 過去와 같은 全体 責任的인 負擔을 減少하겠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美國의 「힘」의 限界를 反省한 結果 亞細亞諸國에 負擔을 增加하는것에 의하여 議會나 國民이 許容하는 戰爭介入을 줄여 低廉한 亞細亞介入을 繼續하면서 亞細亞諸國을 友邦으로 維持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美國의 國家利益에 致命的인 場所와 境遇에 限하여 「選擇的介入」을 圖謀하여 核戰力を 包含한 美軍事力を 投入 함으로써 決定的인 危機만은 打開하려는 政策이라고 보겠다.

2. 極東戰略

美國의 對亞細亞戰略은 「닉슨·독트린」에 基礎하여 새로이 編成되었다. 亞細亞의 防衛를 위하여 從前에는 美國이 專担하였던 防衛責任을 分担하여 一次的으로 그 当事國이 責任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亞細亞는 亞細亞人의 손으로」라는 戰略概念으로 美國은 亞細亞에 海·空軍은 長期駐留시키지 않는 地上兵力은 絶對로 斷念한다는 것이 根本的 原則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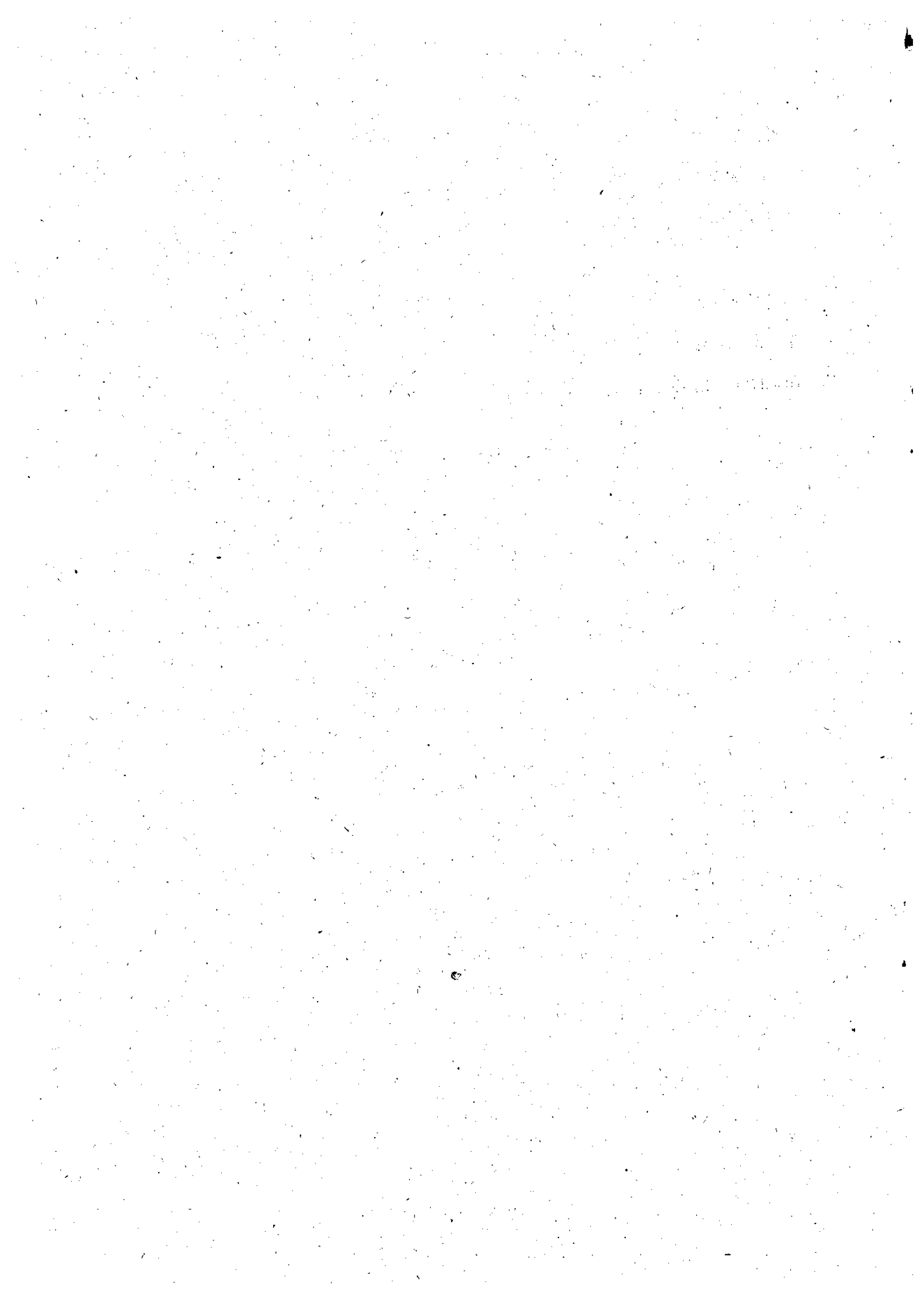
닉슨大統領은 70年度 外交敎書에서 美國의 世界戰略을 2·5戰略에서 1·5戰略으로 轉換할것을 闡明하였다. 即 歐洲와 亞洲를 各各 하나로 보고 이들 地域에서의 紛爭을 0·5로 看做하여 對峙하던 從來의 戰略을 歐洲나 亞洲를 別個로 보지않고, 하나로 보고 그 紛爭을 0·5로 看做한다는 1·5戰略으로의 轉換이었다. 이 1·5戰略에 立却하여 對亞細亞戰略은 世界戰略의 테두리內에서 遂行하게 되었다.

「닉슨·독트린」을 忠實히 履行하고 弗貨防衛를 위하여 美國은 亞細亞의 各前進基地와 그곳의 駐留美軍兵力을 大幅 縮少하였다. 韓國을 위시하여 日本, 比律賓 및 泰國에서 漸次的으로 駐留美軍을 削減하였다.

極東地域의 最前方인 韓國에서의 1972년에 實施한 駐韓美軍의 一部撤収는 「닉슨·독트린」의 模範的 CASE이었다고 한다.

이에따라 極東에서의 새로운戰略은 「前進戰略」에서부터 「遠隔駐留戰略」으로 轉換되었다. 「遠隔駐留戰略」이란 海外基地 및 그

곳의 駐留兵力을 撤収시키며 그代身, 有事時에는 美本土에서 戰略予備軍을 高速大型輸送機로 緊急空輸하여 戰場에 再展開하는 戰略概念이다. 韓國에서 撤収한 美軍地上兵力은 FOCUS LETINA型 大空輸作戰이나 巨人輸送機 C-5 A의 登場으로 一旦 危急한 境遇 緊急措置를 取하면 된다는 것이 特히 韓半島를 中心으로 한 美軍의 基本的인 極東戰略概念이라 하겠다.



第2章 日本의 軍事政策과 軍事戰略

第1節 軍事政策

1. 美日安保体制

日本의 軍事政策의 基調는 美日安保体制를 主軸으로하여 美國의 對亞細亞政策의 一環으로 極東에서의 反共態勢를 固혀온 것이라 하겠다. 第2次 世界大戰後 創設된 國際聯合이 最初에 企圖한바 대로 有力한 機能을 가졌다며는 美日安保体制는 生覺되지 않았을 것이다.

日本에 隣接하여 있는 世界最大의 共產主義國家인 蘇聯과 中共은 1950年 2月에 「日本과 그와 聯合하는 國家」를 假想敵國으로 하는 軍事同盟을 締結하였다. 戰後 世界赤化를 基本目標로한 共產勢力의 至近한 威脅과 國內의 左傾勢力에 의한 威脅에 直面한 日本은 戰爭을 拋棄한 所謂 「平和憲法」下에서는 束手無策의 狀態이었다. 이에 當時 吉田首相은 深刻한 防衛問題에 當面하였으며 따라서 對外的威脅에 對하여는 美軍의 日本基地使用을 條件으로한 美國의 保障, 對內的인 共產威脅에는 準軍事的인 警察隊의 設置로 對処하려는 基本政策下에 1951年 9月 平和條約締結과 同時에 美日安保條約을 締結하기에 이르렀다. 當時 日本國民은 美軍 占領下의 主從關係에서 마련된 美日安保條約이 日本의 一方的인 「對美 基地提供協定」에 不過한 不平等한 것이라하는 反響이 憤々하였다. 그리하여 1960年 6月 美國의 日本防衛義務를 明示함으로서 片務性을 是

正하고 日本의 自主性を 認定한 新安保條約을 締結함으로써 美日間의 友好相互防衛體制를 堅固히 하였다.

1969年 11月の 「닉슨·佐藤」 首腦會談은 同條約의 1970年度 有效滿期를 自動延長하게 하였으며 또한 極東의 安全과 繁榮을 뒷바침하는 擴大된 意義를 갖는 美日安保體制로 再確認하였다. 더욱이 美日安保體制下에서의 日本의 防衛力整備計劃은 着実に 進行되고 있으며 劃期的인 防衛力強化計劃인 第4次 防衛力整備計劃의 推進을 主要政策의 하나로 하고있는 現 田中內閣도 基本的인 防衛政策에는 變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吉田政權의 使命이 桑港講和條約締結과 더불어 美日安保條約의 成就에 있었다면 岸·池田政權時代는 美日安保條約體制의 그늘에서 經濟大國으로의 建設이었고 佐藤執權期는 安保條約의 延長, 沖繩失地回復等 굵직한 諸政策의 實現이었으며 現 田中政權은 第4次 防衛力整備計劃의 忠實한 推進과 美日安保體制下에서의 在日美軍基地의 調整問題가 重要한 課題라 하겠다.

이와같이 美日安保體制는 日本의 軍事政策의 基調로서 오늘날 까지 一貫性있게 繼續 維持되어온 것이다.

2. 國防基本政策

「國防」은 國家의 獨立과 安全을 保障하는 것으로서 「軍事的防衛」는 國防의 一手段에 不過한 것이다. 따라서 日本의 國防基本政策은 憲法과 이에 따르는 防衛法令 및 諸般政策에 의하여 決定되고 있다. 憲法 第9條에는 「日本國民은 正義와 秩序를 基調

로 하는 國際 平和를 誠實하게 追求하고 國權의 發動인 戰爭과 武力에 의한 威脅 또는 武力行使는 國際紛爭을 解決하는 手段으로서는 永久히 이를 拋棄한다.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陸·海 空軍 및 其他 戰力은 이를 保有하지 않는다」로 規定하고 所謂 「平和憲法」이라고 自稱하고 있다. 그러나 外部로 부터의 侵攻을 받을 경우에는 主權國家로서 自衛權發動에 의하여 이를 排除하기 위한 武力行使는 拋棄한것이 아니라고 有權解釋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自衛權行使를 위한 防衛力의 保有는 妥當한 것으로 認定하고 自衛隊를 創設하였으며 또한 国力, 國情에 알맞는 防衛力增強을 進行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의 國防이 自體의 防衛力에 만 의거한것이 아니고 美日安保條約 또는 國聯의 安保措置에 의한 集團安保體制에 期待하여야 함으로 1957年 5月 國防會議는 「直接 또는 間接侵略을 未然에 防止하고 萬一 侵略이 있을경우 이를 排除 함으로써 民主主義를 基調로하는 日本國의 獨立과 平和를 守護한다」는 國防目的을 規定하고 「國防基本方針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였다.

가. 國際聯合의 活動을 支持하고 國際間의 協調를 圖謀하여 世界 平和의 實現에 期한다.

나. 民生을 安定시키고 愛國心을 高揚하여 國家安保에 必要한 基盤을 確立한다.

다. 国力, 國情에 따라 自衛에 必要한 限度內에서의 效率的인 防衛力을 漸進的으로 整備한다.

라. 外部로 부터의 侵略에 對하여서는 將次 國聯이 有效하게 이

를 阻止하는 機能을 다할때 까지 美國과의 安保体制을 基調로 하여 이에 対処한다. 이에 附加하여 所謂 非核三原則과 民間優位原則等 自主國防 5原則을 提示함으로써 國防意識에 對한 國民的 合意에 呼訴하고 있다.

가. 平和憲法을 遵守하면서 同時に 國土를 防衛한다.

나. 外交와 一體가 되어 國家의 다른 政策과의 調和를 圖謀한다.

다. 軍民統制를 貫徹하고 武官보다 文官을 優位에 둔다.

라. 核武器의 不生産, 不保有 및 不搬入의 所謂 非核三原則을 固守한다.

마. 美日安保体制下에서의 自主防衛를 補完한다.

第 2 節 軍 事 戰 略

1. 「三矢研究」와 「부르란作戰計劃」

日本은 古來로 亜細亞大陸으로 부터 韓半島를 通하여 불어오는 北風에 對備하는 것이 日本防衛의 傳統的 固有의 戰略基調이었다. 따라서 現在의 自衛隊도 그 本然의 戰略構想에 있어서 韓半島를 包含하여 北方에 主眼을 두고 着想하게 된것이라 하겠다.

1963年 2~6月에 걸쳐 日本의 防衛當局은 對韓半島戰略을 具體的으로 構想立案하였다. 所謂 「三矢研究」는 自衛隊創設以後 最初로 實施한 大規模圖上演習으로써 自衛隊의 基本戰略概念이 提示되었으며 이는 以後計劃의 基礎가 되어 現實的으로 日本防衛計劃의 支柱로서 發展되고 있는것이다.

同 研究는 韓半島에서 共產軍이 再南侵함으로서 戰爭狀態가 惹起되고 따라서 日本國內의 治安情勢가 惡化되었다는 想定下에 軍事的措置를 包含한 非常事態에 對한 立法措置등 國家總動員態勢를 檢討한 것이다. 우리로써 同 研究에 注目되는 것은 假想敵國을 北韓, 中共, 蘇聯으로 想定한 事實과 「狀況下의 研究」라는 日程表에 따라 日本自衛隊의 「防衛出動」이 設定되어 韓半島의 狀況에 따라서는 海外派兵까지도 包含되고 있다는 것이다.

三矢研究는 1965年 2月 衆議院予算委에서 社會黨의 岡田議員에 의하여 公開되어 總力戰體制下의 戰略構想이 違憲이라는 것을 包含하여 文民優位, 非常事態體制와 假想敵國의 選定등 問題로 與野間에 크게 論爭되었으며, 드디어는 保守黨과 社會主義的 野黨間的 「國家觀의 對立」까지 擴大된 바 있었다.

「부르란 作戰計劃」은 1967年 美太平洋地區司令部에 의하여 立案되었는 것으로 萬一 韓半島에 危機가 오는 경우를 假想하여 計劃되었던 것이며 그 計劃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作戰의 初期段階에 있어서

가. 陸上自衛隊의 五分之三 兵力을 九州, 對馬海峽의 韓半島方向 海岸에 集結하고 殘餘兵力은 東京周邊과 北海島에 展開한다.

나. 海上自衛隊는 瀨戶內海에 集結, 九州北方의 海域을 警戒한다.

다. 航空自衛隊는 全兵力의 五分之四를 九州 및 中國兩地方에 集結, 九州北方을 常時 警戒飛行한다. 殘餘兵力은 北海島, 東海海域을 哨戒探索한다. 兵力 및 物資의 補給은 日本을 經由하여 韓半島에 推進되므로 日本에서의 兵力移動 및 軍需物資, 兵器輸送

의 戰鬪地域에 의 護衛는 美日兩空軍의 共同任務로 한다.

作戰이 本格的 戰爭段階에 들어가면

가. 海上, 航空의 兩自衛隊는 日本에서 出擊하는 美軍爆撃機를 指定한 空域 및 海域에서 護衛하고 救助한다.

나. 日本 本土에서 韓國, 沖繩 및 台灣에 의 軍事輸送은 美軍과 自衛隊의 共同任務로 한다.

다. 自衛隊는 沖繩, 台灣에서의 通信, 建設, 整備 등의 後方支援活動에 從事한다.

라. 自衛隊가 直接 韓國 및 中国本土에 의 攻撃에 參加할 必要가 생겼을 경우에는 日本側의 同意를 얻는다.

마. 作戰이 一定한 成果를 얻은後 占領地域에 國聯警察軍으로서 參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以上과 같이 美國은 第二의 韓國戰勃發의 경우를 假想 日本의 軍事協力을 構想하고 期待하고 있는 것이다.

2. 防衛戰略

日本의 防衛戰略은 憲法의 制限으로 自衛의 限界를 벗어날수 없으며 「專守防衛」戰略을 基本方針으로 하고 美日安保體制에 立脚한 美國의 核雨傘保護下에 國家의 獨立과 平和를 守護한다는 內向的인 消極的 戰略概念이다. 小規模의 在來式 局地戰爭에 의한 直接侵略과 또한 間接侵略에 對하여서는 自體의 防衛力으로써 對処하는 反面, 核武器에 의한 全面戰爭이나 大規模의 武力紛爭에는 美日安保體制에 의한 美國의 核抑止力에 期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日本防衛戰略의 特徵은 根本的으로 局地制限戰을 規定하고 核戰爭은 想定하지 않은데 있다고 하겠다.

1970年 10月 發表한 最初의 防衛白書에 의하면 自主的 防衛力의 整備方向을 提示하고 自主防衛力은 間接侵略에 対処하며 小規模의 武力戰爭과 局地戰에 対処할 防衛力을 갖추고 全面戰爭의 경우는 美軍의 核雨傘에 依存할것을 다짐 하면서 專守防衛를 日本防衛의 基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從前까지 日本의 安全保障이 美日安保體制를 主軸으로 하고 自體의 防衛力을 從으로 하여 維持해온데 反하여 70年代의 自主國防을 부르짖는 段階에 이르러서는 逆으로 自體防衛力을 主軸으로 하고 美日安保體制를 從으로 하여 維持하려는 方向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傾向이다. 이러한 새로운 安保概念에 따라서 基本的인 「專守防衛」戰略은 若干의 修正을 加하여 보다 積極的인 「戰略的守勢」即 「攻勢的防衛」概念이 抬頭하게 되었다.

大陸으로 부터 隔離되어 島嶼國家로 形成된 日本은 外部로 부터의 侵攻을 狹少한 國土가까이 水際面에 沿하여 上陸地點에서 擊退시킨다는것은 自衛上 不利한 作戰이며 可及的이면 本土에서 멀리 떨어진 海上이나 空中에서 擊退시키는 것이 國土防衛上 有利한 作戰이라는 構想이다. 日本經濟의 生命線인 海上通商路의 保護를 위하여 보다 積極的으로 公海上이나 公空上에서 防衛해야 한다는 이른바 「海上擊破」概念에 의한 「戰略的守勢」의 戰略概念으로 轉換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以上과 같은 「專守防衛」의 테두리 내에서 「戰略的守勢」概念으로 轉換하고 있는 日本의 防衛對象國은 蘇聯과 中共등 社會主義體制國家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第3節 軍事力の 生成過程과 將來

1. 軍事力の 生成過程

日本의 戰爭遂行能力의 除去를 指向했던 美國의 意向을 忠實히 反映한 戰後의 新憲法 第9條 第2項은 「...國權의 發動인 戰爭과 武力에 의한 危脅 또는 武力의 行使는 國際紛爭을 解決하는 手段으로서 永久히 이를 拋棄한다」라고 하였으며, 第2項은 「陸海空軍 및 其他의 戰力」의 不保持와 「國家의 交戰權」의 不認定을 規定하였다. 이와 같은 「戰爭拋棄」의 規定은 占領當局의 要求에 의한 것이었지만 敗戰에 지치고 食糧難과 인플레이에 시달리던 當時의 日本國民의 一般的인 支持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 1946年 6月 憲法議會에서 吉田首相은 第9條를 解釋함에 있어 「自衛權의 發動에 따른 戰爭도 포기」한 것이며 「正當防衛를 認定한다는 것은 戰爭을 誘發하게 되며...正當防衛는 有響한 思考이다」라고 까지 言明하였다.

그러나 激烈한 東西冷戰의 抬頭는 美國으로 하여금 日本의 非武裝化計劃을 修正케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맥아더」占領軍司令官은 1950年의 年頭聲明에서 「日本憲法의 規定은 어떠한 理由를 羅列하였다고 하더라도 相對方으로 부터 敢行되어온 攻擧에 對한 自己防

衛라는 侵害될 수 없는 權利를 全적으로 否定했다고 는 絶對로 解釈할 수 없다」고 宣言함으로써 日本의 再武裝을 시사하기 始作하였다. 韓國戰爭의 勃發에 따른 亞細亞에서의 共產危脅의 現實的 提起와 韓國參戰을 위한 駐日美軍의 大舉出動은 占領當局에 의한 日本의 再武裝을 促進시켰다고 할 수 있다.

即 1950年 7月 「맥아더」將軍은 「7萬5千名의 國家警察予備隊의 創設과 海上保安庁 定員 8千名의 增授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하는 것을 許可한다」라는 書翰을 吉田首相에게 發送함으로써 오늘날 自衛隊의 母體인 警察予備隊가 創設을 보게 되었다.

同年 8月의 「警察予備隊令」은 警察予備隊의 目的을 日本의 「平和와 秩序를 維持하고 公共의 福祉를 補強하기에 必要한 限度內에서 國立地方警察 및 自治體警察力을 補完」하는데 있다고 하였으며 警察予備隊의 活動도 「警察의 任務範圍에 限定된다」라고 規定하였다.

그러나 1951年 9月 平和條約과 아울러 成立된 美日安保條約의 前文末尾에서 美國은 日本이 「直接 또는 間接侵略에 對한 自國의 防衛를 위하여 漸進적으로 스스로의 責任을 担当하게 되는 것을 期待한다」라는 承諾을 받아들여 日本은 1951年末 警察予備隊의 定員을 3萬5千名 增援하여 11萬으로 擴張 決定하였으며 小銃 및 機關銃으로 限定되었던 裝備도 美國으로 부터 貸與받은 野砲와 輕戰車로 強化시켰다.

또 美國으로 부터 貸與받은 艦艇을 主軸으로 海上警備隊를 新設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增強된 警察予備隊는 保安隊로, 그리고 海上警備隊는 警備隊로 각각 改稱되고 이를 指揮 管掌하는 保安庁이 1952年 8월에 發足되었다. 새로 制定된 保安庁法은 포츠담 政令의 警察予備隊의 任務를 「警察의 任務範圍에 限定」시켰었음에 반하여 保安庁의 任務를 「平和와 秩序를 維持하고 人命 및 財産을 保護하기 위한 特別한 必要가 있을 境遇에 行動하는 部隊의 管理 및 運營을 遂行한다」라고 定함으로써 軍隊의 性格을 浮刻시키기 始作하였다.

1953년에 접어들면서 美國의 相互安全保障法에 의한 對日軍援問題와 關連하여 日本의 防衛力強化問題가 提起되었다. 即 相互安全保障法에 依拠하여 日本이 美國의 軍援을 公여받게 되면 日本은 軍事的 義務를 遂行해야 되기 때문에 保安隊와 警備隊의 性格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美國의 態度는 1953年 9月 「덜레스」國務長官의 「日本은 現在 保有하고 있는 것보다 큰 安全保障을 위한 實力을 保有할 必要가 있다고 本人은 믿고 있다」라는 發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日本防衛力の 強化를 強力히 慫慂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吉田政府는 8個月에 걸친 「로버트슨」國務長官補와 池田特使와의 交渉을 中心으로 한 절

총과 自由, 改進黨 및 日本自由의 保守三黨간의 協議를 거쳐

1954年 3月 防衛庁 設置法과 自衛隊法案을 国会에 上程시켰다. 野
黨의 強力한 反對에도 불구하고 兩院의 審議를 거쳐 6月에 公布
된 上記의 防衛二法에 따라 保安隊와 警備隊는 다시 13萬의 陸
上自衛隊, 1萬6千의 陸上兵力과 5萬8千의 海上自衛隊 및 1百50
臺의 航空機와 6千3百名의 兵力으로 새로 充足된 航空自衛隊로 改編되었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警察予備隊, 保安隊 및 警備隊는 目的과
任務面에서 治安對策機關의 性格이 強하였으나, 自衛隊는 外國의 侵
略에 對備하여 日本을 防衛한다는 軍隊的 性格으로 변모되었다.

即 防衛庁設置法 第4條에 의하면 防衛庁의 任務는 「우리나라의
平和와 獨立을 守護하고 國家의 安全을 保全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 이를 위하여 陸上自衛隊, 海上自衛隊 및 航空自衛隊를 管理하
며 또 이와 關聯된 事務를 遂行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自衛
隊法 第3條는 「自衛隊는 우리나라의 平和와 獨立을 守護하고 國
家의 安全을 保存하기 위하여 直接侵略 및 間接侵略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防衛하는 것을 主된 任務로 하며 必要에 따라 公共의
秩序維持에 任한다」라고 定하고 있다.

警察予備隊가 保安隊로 改編된 直後인 1952年 9月 保安庁內에는
長期防衛計劃의 立案을 위한 制度調査委員會가 設置되었다. 1953年
3月 이 委員會는 戰後日本의 政府機關으로서 作成된 最初의 防
衛計劃이라 할 수 있는 「制度調査報告」를 提出하였는데, 이의
第1次案은 陸上兵力 30萬, 艦艇 45萬屯 그리고 航空機 6千7
百臺를 1965년까지 確保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防衛力の

重点을 航空力에 둔 이 案은 所要經費를 初年度인 1953년에는 GNP의 3.8% 그리고 最終年度인 1968년에는 GNP의 8.5%로 算定하였으나 이 計劃은 世界軍事情勢와 日本經濟의 展望을 明確히 評價할 수 없는 13年을 計劃期間으로 策定하였다는 理由로 여러 차례의 修正을 받게 되었으며, 第1次 防衛力整備計劃이 確定을 본 것은 自衛隊가 發足한 월선 後인 1957年 6月이었다.

2. 防衛力整備計劃과 戰略的意義

1958年부터 1960년까지 實施된 第1次 防衛力整備計劃을 通하여 日本은 4百62億圓을 投入하여 陸上自衛隊 17万名, 海上自衛隊 11万吨, 航空機 217台 및 航空自衛隊 1533台를 確保하였다.

또 1962년부터 1966년까지 實施된 第2次防 期間中에는 1兆3千2百億圓을 投入함으로써 陸上自衛隊의 兵力水準은 事實上 그대로 維持되었으나 호크 2個大隊가 새로이 編成되었고, 海上自衛隊는 艦艇이 14万吨 그리고 航空機가 230대로 強化되었으며 航空自衛隊는 1,052台的 精銳機로 代替되고 2個의 나이키大隊의 創設을 보았다.

1967년에 着手되어 1971년에 매듭지어진 第3次防에는 2兆3千4百億圓이 投入되었다. 그 結果 陸上自衛隊의 兵力水準은 18萬線을 維持하였으나 헬리콥터團의 創設(總保有 280台) 戰車(660台) 및 火砲의 改良, 增強 그리고 5個의 호크大隊의 確保로 火力과 機動力의 強化를 이룩하였다. 한편 海上自衛隊는 驅逐艦 48隻과 潛水艦 15隻을 包含한 總210隻 17萬4千屯의 艦艇을

保有하기에 이르렀고, 航空自衛隊의 保有機는 880 台로 다시 減少되었으나 F-4EJ의 導入과 나이키의 4 個大隊로의 增強을 통하여 顯著한 質的 向上을 期하였다.

第 1 次에서 第 3 次 防衛力整備計劃을 推進해옴에 있어 日本은 GNP의 1%未滿만을 防衛費에 投入하였고 戰略核武器를 包含한 對美軍事的 依存體制에 本質的인 變化를 가져오지는 못하였지만 憲法上的 制約과 野党的 激烈한 反對를 包含한 政治的인 困難에도 不拘하고 이제 自衛隊는 質的으로 優秀한 軍事力을 確保하기에 이르렀다.

日本政府는 難航 끝에 1972 年부터 1976 年 까지 5 年間에 걸쳐 施行될 第 4 次 防衛力整備計劃을 昨年 10 月에 決定하였다. 이 期間에 投入될 經費는 4 兆 6 千 3 百億圓(約 1 百 50 億 달러)로 1971 年 4 月 當時의 防衛庁長官 中曾根이 말한 5 兆 8 千億圓보다는 縮小된 規模이지만 3 次防 2 兆 3 千 4 百億圓의 支出의 約 2 倍에 該當된다 그 內訳을 살펴보면 陸上自衛隊가 1 兆 7 千 4 百億圓을, 海上自衛隊가 1 兆 7 百億圓을, 그리고 航空自衛隊가 1 兆 2 千 6 百億圓을 各各 使用하게 되어 있으며 總額中 約 1 兆 8 千 8 百億圓이 人件費와 糧食費이고 裝備費로는 約 2 兆 7 千 9 百億圓을 支出할 予定으로 되어 있다.

4 次防의 最終年度인 1976 年에 完成될 3 自衛隊의 主要裝備의 整備目標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의 數字는 3 次防의 実績)

◎ 陸上自衛隊: 戰車 820 台(660 台), 裝甲車 650 台(650 台), 自走砲 140 門(60 門), 戰術航空機 350 台(310 台)中 헬리콥터 320 台(280), 호크 8 個大隊(5 個大隊)

◎ 海上自衛隊：艦艇 170 隻，21 万 4 千屯(210 隻，17 万 4 千屯)，
그 中 驅逐艦은 54 隻，12 万 1 千屯(48 隻，9 万 7 千屯)，潛水艦은
15 隻，2 万 7 千屯(15 隻，2 万 1 千屯)，航空機 200 台(170 台)

◎ 航空自衛隊：航空機 770 台(880 台)，그 中 F-4EJ 120 台
(80 台)，RF-4F 14 台，T-2 練習機 60 台(4 台)，FST 改對地戰闘
機 60 台，C-1 輸送機 30 台(4 台)，나이키 6 個大隊(4 個大隊)

그러면 4 次防이 完成될 1970 年代 中盤에 있어서의 日本의 軍事
力은 世界的으로 보아 어떠한 位置를 占有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軍事力은 어떠한 戰略構想에 立脚된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4 次防의 規模를 檢討해본다면 첫째로 日本의 防衛支出은
GNP의 1% 未滿水準에 머물러 있게 되겠지만，巨大化되고 急速度
로 成長하는 日本의 經濟力을 考慮할때 決코 작은 規模라고는 할
수 없다. 1972 年度의 國防費를 볼때，日本의 防衛費 26 億달라
는 蘇聯(910 億달라)，美國(760 億달라)，中共(80~160 億달라)，
西獨(76 億달라)，英國(69 億달라)，프랑스(62 億달라)，그리고 이
탈리아(32 億달라)의 다음가는 世界 第 8 位의 規模이다. 萬一
유럽安保會議 및 相互均衡減軍會議가 成功的으로 進行된다면 日本의
國防費支出은 1970 年代 中盤에 있어 적어도 프랑스와 이탈리아程
度 나아가서는 美·蘇·中共에 다음가는 規模까지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量的인 面에서 볼 때，地上軍의 18 万은 世界 第 24 位
로 이는 4 次防의 完結時에도 그 順位에는 큰 變化가 있으리라고
는 보여지지 않고 있다. 海上自衛隊가 現在 保有하고 있는

14万4千吨은 第10位가 되지만 計劃完成時의 21万4千吨은 美国(1972年 現在 799万吨), 蘇聯(380万吨), 英国(130万吨), 프랑스(46万吨), 中共(30万吨), 西独(23万吨)의 다음가는 水準이 될 것이다. 航空自衛隊의 現保有機 920台는 世界 第12位에 該當되는 바, 4次防 完成時의 770台는 오히려 그 順位가 下落되는 것을 意味할는지 모른다. 따라서 量的인 面에서 日本은 經濟力에 相應하는 世界第3位는 못되지만 적어도 10位圈에 該當되는 戰力を 保有하게 될 것이다.

세째로, 質的인 面을 볼 때, 그리 簡單한 解答을 提示할 수는 없지만, 自衛隊가 保有하고 있고 또 確保하게 될 武器体系가 世界1級이라는 点を 考慮한다면 日本의 軍事力은 10位圈 以內에 들게 된다고 展望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日本은 이러한 軍事力을 어떠한 戰略構想下에 確保하려고 있는가라는 問題가 提起된다. 昨年 10月9日 4次防計劃과 함께 公表된 防衛庁의 짧은 防衛構想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即 「우리나라의 防衛는 美国과의 安全保障体制를 堅持하면서 우리나라 自体도 有効한 防衛力을 保持하여 侵略을 未然에 防止하는 것을 基本으로 하고 또 核의 危脅에 對하여서는 美国의 核抑制力에 依存하기로 한다. 万一 侵略이 發生하였을 경우에는 間接侵略 및 小規模의 直接侵略에 對하여는 우리나라가 自力으로, 그 以上の 規模의 武力侵略에 對하여서는 美国의 協力을 얻어 이를 排除하기로 한다.」 그리고 同日字로 이루어진 增原防衛庁長官의 4次防에 대한 「主旨說明文」은 「... 4次防을 決定하였을 때, 3次防의 整備

方針을 답습하는 思考方式에 立脚하고 있었는데 4次防의 大綱에서는 3次防時期에 없었던 오키나와에 配備하는 部隊整備가 留意事項으로서 새로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 差異点이라고 할 수 있고 全般的으로 본다면 거의 3次防의 大綱그대로의 内容이라고 해도 相關없는 것으로 生覺한다」라고 附言하고 있다.

따라서 4次防에 있어서의 日本의 戰略構想은 前述한 「整備計劃」 「防衛構想」 및 「主旨說明文」과 함께, 1969年 愛知外相의 訪美를 앞두고 防衛庁에서 外務当局에 提示한 「70年代의 自主防衛構想」 防衛二法 改定時의 有田防衛庁長官의 議會發言, 1970年 10月 戰後 最初로 公表한 「防衛白書」등을 通하여 檢討될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을 통해서 본 日本의 戰略構想은

첫째로 「美國과의 安保体制을 基調로 하여」라는 1957年 5月の 國防會議에서 決定된 國防의 基本方針은 質的인 變化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即 通常武器에 의한 侵略에 대하여서는 自衛隊의 戰力으로 대처하며 不足分(核戰力, 第7艦隊 및 第5空軍)만을 美·日安保体制로 補完한다는 「自主防衛」의 構想이 採択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專守防衛」의 思想에서 漸次 脫皮하여 戰術的攻勢를 基準으로 삼으려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即 從前의 「領空 및 領海를 防衛한다」라는 構想에서 一步 나아가 公海上에서 敵의 侵略을 擊退시킨다라는 積極的인 姿勢를 갖추기 始作하였다. 이는 通常 補給路 確保를 위한 海洋重視의 戰略構想을 意味한다고 할 수 있다.

세째로, 航空自衛隊의 防衛構想에서 重要視되고 있는 것은 駐日 美空軍力の 窮局的인 減縮 乃至 撤収를 前提로하여 「航空侵略에 대하여 相当期間 航空優勢를 確保할 수 있는 体制」를 整備하기 위한 空軍力の 強化를 시사하고 있다.

네째로 陸上自衛隊는 航空自衛隊와는 달리 直接侵略보다 間接侵略에 力點을 두고 있는 듯 하다. 即 日本은 「美·日安保体制가 存続하는 限 極東의 共產國은 美國과의 直接的인 對決을 避할 것이며 主로 間接的인 手段으로 美國의 戰略体制의 弱化和 日本의 國家体制의 變革을 戒할 것이다」라는 前題를 하고 있는바, 이는 1963年 日本國會에서 問題化되었던 「三矢研究」의 想定과도 一致된다.

끝으로 日本은 核武装과 兵力水準의 劇期的 增大는 當分間 不可避한 것으로 評價하고 있는 듯 하다. 「防衛白書」는 核武器는 保有하지 않으나, 戰術用 乃至 防衛用 核武器의 保有는 憲法에 違反되지 않는다고 하여 當分間 核武装을 하지 않겠으나 將來에 있어서 核武装에 着手할 수 있는 餘地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核武装에 따라 造成될 수 있는 國內 및 國際政治上的 困難과 經濟的 負擔을 考慮하여 現在 이를 推進할 用意는 없으며 核戰力은 基本的으로 美國에 依存하려 하고 있다.

또 防衛白書의 原案에서는 徵兵制가 論議되었으나, 國內政治上的 反應을 考慮하여 이 部分을 削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日本은 自衛隊員의 質的 水準을 維持하면서 量的인 擴張을 併行시킨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고 評價하고 自衛官의 精

銳化와 戰力の 機械化와 火力增大를 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軍事力の 将来

戰後 日本 軍事力の 生成課程과 第1次防에서 4次防에 이르기까지의 防衛力整備計劃을 살펴 보면 對外政策에서와 마찬가지로 日本은 뚜렷한 軍事政策의 方向을 設定하고 이에 따라 軍事力の 存在樣式을 摸索하여 왔다고는 보기 어렵다. 警察予備隊의 創設이 그러했듯이 日本의 自衛力の 增強은 적어도 初期에 있어서는 美國의 要請 乃至 压力과 其他의 國內外的 要件을 妥協한 所産이라고 할 수 있다. 即 日本은 값싸고 便利한 美國의 軍事的 保護下에서 經濟建設에만 集中的 努力을 傾注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軍事費의 支出과 軍事力の 規模는 對內外的 政治的 困難을 隨伴하지 않고 또 經濟成長을 阻害하지 않는 最少限의 것으로 限定시켜 왔다.

그러나 美國이 第2次大戰 終戰以來 担当하여온 아시아에서의 軍事的 容與와 役割을 縮少 整理하고 있고 새로운 아시아의 4強關係가 태동되고 있기 때문에 甚대한 經濟的 潛在力을 保有하고 있는 日本으로서도 이제 對外政策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軍事的 姿勢와 方向을 設定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選擇의 岐路에 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狀況 속에서 一部에서는 日本의 本格的인 再軍備를 主張 또는 予測하는 사람도 많다. 1969年을 始點으로 日本의 財界는 自主防衛論을 主張하고 防衛産業問題를 強力히 提起하기 始

作하였다. 日經連의 桜田代表常任理事(日清紡會長)는 1969年 4月의 總會에서 「日本の 安全은 美国과 韓國의 納稅者들에 의하여 維持되고 있기 때문에 半國家이다」라고 主張하면서 防衛力の 增強을 主張하였다. 한편 同年 5月 經團連의 總會는 植物業會長の 「自主防衛力を 強化시키자」라는 提議를 決議의 1項으로 採択하였다. 또 同年 5月末 日本兵器工業會의 新任會長으로 選出된 大久保三菱電機社長은 「防衛予算을 GNP의 4%로 引上시키고 東南亞에 대한 武器輸出을 許可해야 된다」라는 注目할 發言을 하였다. 지난날 防衛問題에 대한 言及을 意識적으로 回避하여온 財界의 指導者들의 이러한 發言과 併行하여 政界一角에서도 이에 同調하는 大胆한 움직임이 태동되고 있다. 그 例로는 自民黨의 安保調査會의 會長인 船田이 主動하여 作成한 「船田防衛試案」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自民黨內에서 有力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 船田議員은 「防衛生産의 市場이 至極히 狹少한 現狀으로서는 到底히 優秀한 近代武器生産을 期待하기 어려우므로 台灣, 韓國, 越南等 東南亞諸國으로의 武器輸出의 길을 열라」고 強力히 要求하였다. 이미 第3次防의 期間中 年 2千億圓 以上을 調達하는 産業으로 成長된 日本의 防衛産業界는 日本의 軍事力の 存在樣式에 보다 큰 比重을 차지하고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當然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듯이 未來學者인 「히마 칸」은 日本의 核武装마저 予見하고 있는 實情이다.

強大國에 있어서의 政權교체가 그 나라의 國防政策과 戰略方向을 根本적으로 바꾸게 되는 경우란 거의 없다. 그러나 日本에 있어서의 与党인 自民党的 位置와 國民의 支持度는 1958年以來 예외 없이 下降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1970年代 後半에 있어서의 自民党的 单独執權의 難望性 乃至 失權이 本格的으로 論議되고 있기 때문에 日本의 軍事動向의 方向은 더욱 流動的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 選舉를 통하여 第1野党的 地位를 確固히한 社会党과 最近 눈부신 党勢擴張을 보이고 있는 共産党은 美日安保條約의 폐기와 「美·中·蘇 및 統一된 韓國과의 個別的인 集團平和安保條約의 締結」(共産党)을 主張하고 있음으로써 政治版圖의 變化 如何에 따라서는 日本의 軍事方向이 一大變革을 招來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위에서는 日本의 本格的인 再武装과 非武装中立의 極端的인 可能性을 살펴보았지만 日本의 軍事政策과 戰略의 方向은 國內外的 与件에 急變이 없는 한 3次防과 4次防에서 나타난 自主防衛의 漸增이라는 基本趨勢를 繼續 나타낼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日本이 國內政治上 困難한 憲法 第9條의 改定을 試圖하지 않은채 그리고 美國과의 安保体制를 그대로 維持한채 GNP의 1% 내외를 投入하여 自衛力을 漸次的으로 또 완만하게 增強한다는 方向을 意味한다. 이에 따라 日本은 國內外的으로 強力한 反撥을 惹起시킬 수 있고 큰 投資를 하고도 軍事的 實効가 적은(仏關西의 例) 核武装을 試圖하지 않는 것을 意味한다. 그리고 日本은 美國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國家와도 軍事的 紐帶를 갖지 않으나

防衛産業의 擴張에 따라 漸次的으로 武器輸出등을 摸色하게 되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国内外狀況이 劇的으로 變貌할 때 日本의 軍事政策의 方向은 큰 轉換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即 그 可能性은 至極히 稀薄하지만 社会 및 共産党的 聯立政府가 出現된다면 (自民黨이 单独執權이 不可能해지더라도 自民黨은 民社黨 또는 公明黨과의 聯立政府를 樹立하여 繼續 政權에 主導的으로 參與할 公算이 오히려 더 濃厚하다) 日本의 軍事政策은 美國과의 安保体制를 清算하고 「非武装中立」의 方向을 摸索하게 될 것이다. 한편 中蘇間의 軍事的 衝突이 일어나거나 美國과의 마찰이 심화되어 美·日安保條約이 폐기 또는 無意味化되거나 또는 韓半島에서 戰爭狀況이 勃發할 경우 日本은 本格的인 再武装의 方向으로 움직여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의 展開는 그 可能性을 全的으로 排除는 못하더라도 稀薄하다고 評價할 수 있기 때문에 現在 予見할 수 있는 日本의 軍事政策의 方向은 美國과의 安保体制의 維持를 통한 核保護와 大規模 通常武器에 의한 攻擊時的 支援을 期待하면서 國內外的으로 論難이 적은 範圍 內에서 自主防衛能力을 漸增시키려는 데에 있다고 展望되고 있다. 結局 轉換期에 처한 日本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決定的이고 大胆한 方向을 摸索하기 보다는 安易하고 容易한 「積重式」을 따른다는 選擇을 할것으로 보인다.



才 3 章 韓日軍事協力關係의 可能性診斷

第 1 節 韓日兩國間의 安全保障上 相關關係

1. 地政學的 與件

一國의 地政學的 與件은 國家發展을 위한 經濟發展은 勿論 國防政策과 戰略遂行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는 것이다.

韓半島의 地政學的位置는 大體로 두가지로 分類하여 特徵지어 있다. 첫째는 中央的 位置이고 둘째는 周邊地域的位置이다.

첫째 中央的位置는 北으로 蘇聯, 東으로 日本, 西로는 中共으로 形成된 三角形의 中心에 韓半島가 位置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2個國間의 交通路上의 通過地域으로서 政治, 經濟, 文化上의 接近性을 지나는 結合的 作用을 하게되어 或은 이에 反하여 對立的 利害關係를 갖는 周圍 兩大國의 衝突回避를 위한 分離作用을 하게되는 相對的關係를 갖게된다. 이는 언제나 政治鬭爭의 諸要素를 胚胎하게 되며 戰爭時는 勿論 平和時에도 先進強大國의 目標物이 되고 있는 것이다.

日本으로서는 亞細亞大陸으로 進出하려는 北進政策에 있어서 韓國이 戰略的으로 橋梁的役割을 하게되고 蘇聯으로서는 韓國이 그들의 太平洋進出을 可能케 하는 適合한 基地가 되어 傳統的인 南進政策을 위한 不凍港을 提供하며 中共으로서는 日本에 依한 大陸 侵略野欲에 對한 防衛를 위하여 韓半島가 日本의 支配下에 들어가도록 놓아둘 수 없는 戰略的 緩衝地域인 것이다. 即 韓半島를 中心으

로 南進勢力(內陸勢力)에는 中共과 蘇聯, 海洋勢力(北進勢力)에는 日本-近代에 이르러 美國包含-을 들수 있는 것이다.

둘째 周辺地域의 位置는 心臟地域說의 相對的 用語로서 內陸勢力和 海洋勢力사이에 位置하는 「우라시아」大陸의 周辺地域이란 것이다.

大陸에서 盛興한 國家들에 의하여 韓國은 그들의 領土的 附屬物로서 看做 當하여 왔으며 大陸國家의 政治, 軍事의 影響을 全적으로 받아 왔든 것이다. 現在는 內陸勢力인 共產主義陣營과 海洋勢力인 民主主義陣營間의 緩衝地帶를 이루는 周辺地域國이 되었다. 第2次 世界大戰以後 美蘇兩大陣은 地政學的의 危險地帶인 韓半島의 戰略的 價値를 認定하고 서로 讓步하지 않았으며 結果적으로 人爲的인 分斷을 招來케 하였다.

韓半島가 大陸圈에 附屬된 周辺地域國家로서 大陸圈의 地理的壓力을 받는다는 것은 地政學的의 見地에서 매우 重要한 뜻을 갖는 것이며 海洋性伸張運動보다 大陸性伸張運動의 影響圈에 包含될 可能性이 많다는 것이다. 即 海洋勢力에 의한 北進的壓力보다 內陸勢力에 의한 南進的壓力이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이 보다 크게 作用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上述한바와 같이 地政學的의 與件으로 보아 大陸을 掃拳하고 있는 中蘇의 強力한 共產主義勢力에 의한 伸張運動에 對抗하여 이를 막아 낼수있는 自由主義諸國의 防衛力이 絶對로 必要한 것이며 그 使命은 매우 重大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東北亞細亞의 自由·民主主義國家로서 韓日兩國間에 安全保障上의 相關關係는 絶對的 不可分의 關係이며 相互補完의 關係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2. 美日安保條約과 韓國安保

美日安保條約에 根拠한 駐日美軍基地의 韓國防衛를 위한 役割과 戰略的價值는 韓國戰爭을 통한 敎訓에서 證明되었으며 따라서 再論의 必要가 없다. 1969年 11月 美日首腦의 共同聲明은 「美日安保의 內容變質을 가져왔다고 하겠다. 「닉슨·독트린」과 沖繩返還에 따른 日本의 美代役, 「韓日安保의 一體性」등 一連의 合意事項은 日本의 防衛政策에 一大 劃期的인 轉換을 招來하였다. 即 「美日安保」를 擴大하여 「亞細亞安保」로 끌어 올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韓半島에서 共產軍의 侵略이 再開되는 경우 日本은 駐日美軍基地와 施設의 使用을 肯定的으로 迅速하게 處理하여 韓國防衛를 위한 後方基地로서의 役割을 함으로서 亞·太平洋地域의 平和와 繁榮을 위하여 功獻할것을 美日相互間에 約束한 것이다.

「광·독트린」에 의거하여 亞細亞諸國의 常駐戰略體制下的 美軍을 撤収시키고 있는 닉슨大統領은 그의 第2期 執權期를 맞으며 「우리의 條約에 의한 公約을 尊重할것」이라고 就任辭에서 宣言하였다. 이는 亞·太平洋地域諸國의 平和와 安全을 위하여 適用될것이며 따라서 美日安保條約은 勿論 韓美相互防衛條約上的 公約은 變함이 없음을 確言한 것이라 하겠다.

3. 韓美相互防衛條約과 日本安保

韓國은 極東의 對共戰略基地로서 第一級の 軍事的價值를 가지고 있다.

世界赤化를 위한 共產主義의 極東膨脹을 韓國이 最後阻止線으로서

막아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1953年 10月 韓美相互防衛條約을締結한것은 너무나 當然한 事實이다. 韓國戰爭이 勃發되자 美國을 위시한 16個國이 UN軍으로서 參戰한것도 바로 여기에 그 意義가 있었던 것이다.

「닉슨·독트린」에 의한 駐韓美軍의 減縮이 着實하게 進行되고 있는 韓國에서 1971年 3月 大規模의 韓美合同 空輪訓練인 「후리돔·볼트」作戰이 實施되었었다. 이는 美本土에 位置하고 있는 戰略予備軍을 迅速하게 韓國에 再展開함으로써 緊急事態에 即應하는 作戰能力을 試驗한 것이며 더우기 韓美兩國間의 軍事的紐帶를 強化하고 美國의 韓國防衛公約을 再確認한 것이라고 韓美軍事當局은 發表했었다. 美國의 非美國化政策에 의거한 韓國防衛의 「韓國化」가 進行되고 있으나 韓美相互防衛條約에는 本質的인 變化가 있는것이 아니며 美國은 繼續하여 極東에서의 軍事戰略上 主軸을 이루고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는것이라 하겠다.

「韓國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에 直結된다」면 韓美相互防衛條約에 의거한 韓國休戰線上的 굳건한 防衛는 日本의 安保에 直接的인 寄與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日本의 中共과의 國交正常化 或은 蘇聯과의 關係改善등 脫이데오로기의인 實利外交를 擴大實施한다 하더라도 安保体制의 基本的 姿勢는 쉽사리 變更하지는 못할것이다.

4. 日本의 軍事力增強과 韓國安保

沖繩返還을 前後하여 「美日安保」에서 「亜細亞安保」概念으로 擴大됨에 따라 日本의 防衛戰略概念은 「專守防衛」戰略에서 攻勢的

防衛概念인 「戰略守勢」로 轉換하였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1972年度부터 始作된 第4次 防衛整備計劃은 自主國防을 標榜하고 新銳裝備의 國産化, 一部 攻勢的武器의 保有를 目標로 通常武器에 의한 局地戰을, 自主적으로 對處可能토록 하는 戰力を 整備하고 있다. 따라서 第4次防衛整備計劃의 目標年度인 1976年度에는 核武器를 除外한 通常武器로서는 世界 第一流級의 軍事力を 保有하게 될 것이며, 이같은 軍事力 增強趨勢는 極東에서의 日本의 美國代役을 促進시킬수도 있을 것이다.

그힘이 防衛를 위하여 必要한 限度의 것이라면 小型戰術用核武器를 갖는것도 考慮하고 있는 日本防衛庁, 當局의 見解는 特히 1973年3月 田中首相이 參議院予算委에서 「防衛用核武器는 合憲이다」라고 發言하므로써 政府側見解를 明白히 하였다. 萬一의 경우 日本이 美國의 事前合意나 諒解없이 核武裝을 包含한 軍事力增強을 企圖한다면 이는 美國의 核保護로 부터 獨立하겠다는 底意인 것이 며 따라서 美日安保体制의 變質 或은 全面廢棄의 可能性마저 내다 볼수 있는것이다. 美國의 核雨傘下에서 獨立하여 離脱함으로써 美日安保体制上에 큰 變動이 생기는 경우, 在日美軍에 의한 韓國出擊이 期待하기 困難할 것이다. 이는 韓國防衛에 至大한 否定的 影響要素가 되는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1970年度 GNP가 2,034億弗이었으며 다시 1975年度에는 3,500億弗로 展望할때 日本經濟의 潛在力은 可恐한것이며 비록 그 1%를 軍事費에 充當한다고 하여도 絶對額이 軍事大國化의 길을 가지 않을수 없게 되어있다. 더욱이 日本의 財閥들은 GNP의 2~4%

를 軍事費에 돌리므로서 東南亞에 兵器輸出을 試圖할 段階라고 産
軍複合體制를 부르짖고 있는것이다. 이는 經濟大國에서 軍事大國化,
다시 政治大國化의 길을 摸索하고 있는것이라 하겠다. 亞細亞의
四極體制下에서 日本이 名實 共히 한頂點을 차지할때, 自國實利만을
追求하는 國際政治社會에서 如何한 對韓國態度를 取할것인지 予測하
기 困難한것이다. 그것은 過去의 먼 歷史를 回顧하지 않더라도 最
近의 台灣에 對한 態度에서 찾아 볼수 있는것이며 이러한 島國的
國民性은 다시 帝國主義的 侵略性을 內包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警戒
心은 恆常 日本의 動向을 注視하여야 할것이다.

第2節 韓日軍事協力關係의 歷史的推移

1. 韓日兩國關係의 胎動段階

第一段階는 胎動段階이라 하겠다. 日本自衛隊의 創設動機부터
韓日基本條約締結前까지의 期間에 發展된 兩國關係事項들이 여기에
包含되겠다.

韓國戰爭이 勃發된 直後 卽 1950年7月 맥아더 最高司令官의
指令으로 創設된 警察予備隊로서의 自衛隊는 最初 그 誕生動機부터
韓國 卽 韓半島作戰과 因緣을 맺고 태어난것이라 하겠다. 在日美
軍의 韓國戰 投入에 따라 日本治安의 空白狀態를 메꾸기 위하여
自衛隊는 創設되었다. 1951年 黎港講和條約이 있은後 투루맨大統
領은 「將次 創設될지도 모르는 日本防衛軍은 太平洋地域 諸國의
防衛軍과 紐帶를 갖게 될것이며 他國軍隊와 더불어 日本을 包含한
同地域 諸國의 獨立에 對한 威脅에 相互保障될것」이라고 言及한바

있다. 太平洋地域 国軍과 「紐帶」하고 「相互保障」을 주기 위하여, 日本의 「軍隊」는 創設된 것이다.

第二次大戰後 極東에서의 東西兩陣營의 冷戰 即 毛沢東에 의한 中国本土의 席捲 北韓地域에 對한 共產陣營의 支配等은 美國으로 하여금 日本占領政策을 轉換케 하였다. 美國은 極東에서의 對共封鎖政策의 一環으로 日本을 再武裝시켜 太平洋地域의 自由陣營國家와 더불어 對共戰線의 一翼을 負擔케 한것이다.

自衛隊는 日本防衛를 위한 戰略構想에 있어서 所謂 「三矢研究」를 通하여 最初로 基本概念을 檢討했었다. 韓半島에서 共產軍이 再南侵을 開始하는 想定下에 美日安保體制에 의거한 日本의 軍事 및 非軍事의 諸般措置를 研究 評價했던 것이다.

1960年 美日 新安保條約締結時 條約內容 補完交渉을, 通하여 日本防衛뿐만 아니라 韓國을 包含한 極東의 安全問題가 다루어 졌으며 따라서 韓國을 意識한 가운데 同條約은 修正補完 되었든것이다

2. 韓日國交正常化 段階

第二段階는 韓日基本條約의 締結로 國交正常化를 이룩한 段階라 하겠다. 1965年 8月 韓日間의 基本關係條約을 締結 함으로써 韓國은 日本과 더불어 同等한 地位에서 相互協力關係를 가질 수 있는 基礎를 더련한 것이라 하겠다.

第二次大戰後 韓國은 日本의 壓政에서 解放되어 「카이로」宣言과 「포스담」宣言에 根拠하여 獨立을 찾을수 있는 權利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美蘇에 의한 南北韓分割占領으로 完全한 獨立을 찾기할수는 없었으며 1948年 5月 南韓에서의 自由民主的 總選舉에 의하여 大

韓民国政府가 樹立되었다. 同年 12月 UN總會에서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承認되었고 1951年 9月 癸港平和會議에서 日本이 韓國의 獨立을 承認하고 韓國에 對한 모든 權利를 拋棄하게 規制함으로써 韓國의 主權은 完全히 回復되었다. 그러나 韓日間의 基本關係는 이것만으로는 解決되지 않았다. 우리民族의 恥辱史인 庚戌合邦條約을 包含한 近一世紀間의 모든 旧條約과 協定에 對한 無効化宣言으로서 歷史的인 清算을 하고, 韓國政府의 法統性을 認定하며 日本國이 韓國國民에 對하여 正式으로 謝罪함으로써 基本關係의 原則이 成立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韓國은 近 百餘年間의 仇敵關係를 清算하고 極東에서 友邦國家로서 紐帶를 맺을수 있게 되었으며 反共國家로서 共同步調를 取할수 있게 된것이라 하겠다.

1965年 12月에 「韓國國民들은 自由世界의 大義와 亞細亞反共態勢의 整備를 위하여 万難을 물리치고 이를 받아들인다는것을 闡明하고자 한다」고 朴大統領閣下는 談話文을 發表하였다. 이로써 韓日基本關係는 비로소 同等한 地位에서 相互協力할수 있게 된것이고 特히 極東의 平和와 安全을 위하여 對共封鎖의 共同努力을 傾注하게 됨으로서 軍事的인 意義가 內包하게 된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日本의 執權層은 國會答弁에서 「軍事的紐帶는 아니다」라고 公式的 否定을 하고 있다. 反面에 日本防衛厅의 一部 幹部層에서는 「美日安保體制와 韓日國交正常化는 韓國戰再發時 過去의 6.25 때와 같이 對岸의 火災視할수 없으며 參戰하게 될것은 當然하다」라고 展望하였었다.

1965年 3月 當時 金聖恩 國防部長官은 「韓日會談이 妥結되려는

韓國軍과 日本自衛隊와의 協力關係는 自然히 생길것』이라고 言及한 바 있으며 또한 韓日會談의 主役을 맡았던 李東元 外務部長官은 正式調印後 歸國報告에서 「佐藤首相과 亞細亞安保에 對하여 論議하였다. 韓日條約의 原目標은 中共을 中心으로하는 社會主義國家에 對한 集團安保에 있다」고 言及하였었다. 1965年2月 中共은 「美國이 韓日을 動員하여 侵略的인 NEATO를 結成시키고 北韓과 亞細亞諸國에 對抗시키려는것』이라고 非難하였었다.

3. 非美國化政策 段階

第三段階는 美國의 非美國化政策 段階이다.

닉슨大統領은 1968年 「닉슨·독트린」을 宣稱한 以後, 亞細亞에서 非美國化 政策을 強行하고 있다.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한 日本을 極東에서의 美國代役을 負擔시키려는 것이다.

1969年11月 닉슨, 佐藤會談에서 日本은 韓國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에 直結된다는 것을 是認하였으며 그 結果 極東의 安全을 위해서 必要하면 極東諸國에 介入할것을 合意하였었다. 그러나 日本은 現在 美日安保條約에 의거한 「事前協議」의 方法으로 美國의 軍事行動에 協力하고 있는것이다.

특히 韓日兩國의 軍事的 接近으로서는 兩國軍事指導層 人士의 相互交換訪問이 있었다. 即 1969年7月 韓國의 國防部次官의 招請으로 日本防衛庁의 土屋政務次官이 來韓하였었으며 當時 駐美軍減縮說이 報導된때이기에 國民의 耳目이 集中되었었다. 따라서 國內外 報導陣은 「駐韓美軍의 減縮에 따르는 日本國의 對韓國寄與」를 內

容으로하는 質問이 主題이었으며 이에 對하여 「日本은 憲法의 制限으로 軍事援助는 不可能하나 經濟的 技術的인 相互協力과 援助는 서로 努力해야 할것」이라고 答弁하였었다.

佐藤內閣은 韓國에 對하여 經濟協力을 推進함으로써 間接적으로 韓國의 軍事力增強에 協調하였었다. 即 1970年 第4次 韓日 經濟閣僚會議에서 日本側은 1億5千9百萬弗의 經濟協力에서 5千9百萬弗은 浦項綜合製鐵에 關聯된 4個의 Project에 配當하였었다.

이와같은 特殊鋼, 造船等은 一般平和産業인 同時에 自主國防建設을 目標로 하는 70年代의 韓國防衛産業의 基本이 되는것이라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1970年 2月 國家安保會議에서 開催된 「70年代 韓國安保上의 諸問題를 主題로한 seminar에서는 「韓國의 安保外交는 韓日防衛 協力問題를 亞細亞安保體制의 實現보다 優先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要約하였었다. 이는 韓日軍事提携에 關한 高位政策機關의 關心事項을 나타냈었던 것이라 하겠다.

第三節 韓日軍事協力關係의 問題點 및 展望

1. 問題點

1965年의 韓日協定의 締結에서 보듯이 戰後의 韓日關係의 正常化 및 이에 따르는 韓日關係의 展開는 美國의 亞細亞戰略構想에 따르는 우리의 對美關係의 延長으로서의 性格이 짙다.

韓, 日關係의 正常化는 美國의 對韓政策의 觀點에서 본다면 戰後에 韓國에 對하여 負擔해오던 軍事的 經濟的 負擔의 相當한 部分을 日本에게 移讓시키기 爲한 것인 反面에 또 美國의 對日政策의 觀點에서 본다면 亞細亞政治에 對한 日本의 現實的인 寄與를 誘導하기 爲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點에서 본다면 너슨·독트린은 韓國에 對한 軍事的 經濟的 負擔과 亞細亞問題에 對한 日本의 積極的인 寄與責任을 公式的으로 制度化하기 爲한 美國의 對亞細亞政策의 努力의 表現이기도 하다.

그러나 國交正常化 以後의 韓日關係에서만 보더라도 韓日間에는 國家的 立場의 差異에서 적지 않은 問題가 있다.

政治的인 問題로는 所謂 「平和憲法」의 制約이라 하겠다.

戰爭의 拋棄, 戰力의 不保有, 海外派兵의 禁止등 뿐만이 아니고 日本國의 交戰義務를 負擔시키는 軍事同盟이나 條約의 締結은 否定되고 있으므로 이같은 根本的인 法的制約이 그 主된 問題點이라 하겠다.

둘째로 外交的 側面에서의 問題點이다. 國際政治社會에서 가장 典型的인 國益追求國家인 日本은 中共과의 國交正常化, 蘇聯과의

接近外交政策等 对共産圏国家와의 關係改善을 繼續 推進하고 있다.

특히 北韓에 對하여 漸次 交流擴大로 等距離外交를 試圖하려는 日本으로서는 적어도 그面目을 維持해야 한다는 對外的인 制約을 意識하고 있는것이다.

세째로 社会的側面에 該當하는 問題点이다. 美·日安保体制의 그늘에서 國家防衛에 對한 威脅을 느끼지않은 가운데 繁榮의 길을 걸어온 日本國民은 自主的인 國防意識이 欠如된 狀態에 있다고 하 겠다. 經濟大國이된 日本은 國民에게 「國民的自尊心」을 불러일으 켜 國防에 對한 國民的 合意를 呼訴하고 있으나 野黨傾向的인 言 論, 無定見한 政界 國軍으로서의 法的地位가 保障되지 않은 軍部등 同床異夢的인 國論亂脈이 하나의 큰 問題点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우기 韓日間에 軍事協力關係를 形成한다는 것은 日本國民에게는 無緣한 戰爭. 本意아닌 戰爭에의 介入을 自招하는 結果라고 憂慮 하는 것이 國民底辺에 흐르고 있는 對韓意識이기도 하다.

2. 展 望

韓日間의 軍事協力의 展望을 檢討하기 爲하여서는 問題를 보다 더 具體的인 次元에서 分析하기 爲하여 基本姿勢로서 의 政策問題 그리고 보다 具體的인 事項으로서의 作戰問題와 防衛 産業問題 이를테면 政策·戰略 그리고 作戰과 防衛産業이라는 세가 지 次元에서 檢討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인 것이다.

그러면 먼저 基本姿勢의 理解를 爲하여 政策·戰略面에서 부터 檢討하기로 한다.

1965年 韓日協定の 締結에 따르는 韓日關係의 正常化와 密接化는 韓日間의 兩國關係로서의 側面과 兩國의 對美關係의 延長으로서의 側面的 두가지를 지니고 있으나 當時의 國際政治的 側面에서 본다면 前者로서의 關係보다도 後者로서의 關係의 側面이 더 짙다.

韓日協定은 戰後 美國의 對韓政策의 變化의 第1段階임과 同時에 韓日間의 새로운 關係의 第1段階로서 對美紐帶를 基軸으로 韓·美·日의 三國의 關係를 三角的으로 連結해 놓았다. 그리고 닉슨·독트린은 戰後 美國의 對韓政策의 暫定的 終結로서의 政治的 意義를 多分히 지니면서 美國의 對日政策의 變化를 意味하는 가운데 韓日關係의 第2段階를 區劃하는 反面에 韓·美·日의 三角關係의 持續的인 發展을 確認하면서도 우리의 安保紐帶의 半徑을 可及的이면 對美關係에 있어서 보다도 對日關係에서 接近 縮少시키려는 政策意圖의 表現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韓日協定을 第1段階로 그리고 닉슨·독트린을 第2段階로 하여 韓日關係는 韓日兩國의 對美關係와의 關係속에서 더욱 緊密해 질 수 밖에 없는 狀況에 이르고 있다.

이런 意味에서 본다면 닉슨·독트린은 그間 對美體制에 依한 美國의 保護下에 國力の 成長을 본 日本에 對하여 그 스스로의 防衛를 爲한 自体負擔의 增加 및 地域防衛에 對한 日本의 相當한 責任引受에 對한 問責이기도 하다. 닉슨·佐藤共同宣稱에서 韓國의 安全이 日本의 安保를 爲하여 緊要하다고 確認한 것은 美國의 對日政策의 觀點에서 본다면 極東의 地域防衛에 對한 美日共同關心을 闡明하고 이에 對한 日本의 責任을 公式化한 것이다.

現實的으로 地理的인 与件에서 보아 우리 韓國이 日本에 對하여 占하는 戰略的 價值는 至大하다. 이러한 意味에서 보더라도 日本 自衛隊의 作戰計劃에 있어서 우리 韓國이 그 範圍속에 包含되어 왔다는 것은 當然한 事實이 아닐 수 없다.

日本의 防衛白書에 指摘되고 있는 「侵略의 早期排除」의 對象地域은 우리 韓國을 軍事地域으로 보고 評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63年의 「三矢計劃」은 우리 韓國을 作戰地域으로 보고 38線이 突破되었을 境遇를 假想한 圖上作戰演習이었다는 것은 우리의 注目を 끄는 事實이 아닐 수 없다. 또 1964年의 「飛龍作戰」도 南韓이 계릴라戰化 되었을 境遇를 假想하여 試圖한 圖上作戰演習이었다. 그러나 要는 이러한 日本의 韓國에 對한 作戰地帶로서의 軍事的 關心의 表明이 韓國의 防衛를 위한 것이냐 不然이면 日本 自體의 防衛를 위한 것이냐의 問題가 있다.

닉슨·佐藤共同宣言에 對한 美日間の 態度에는 相當한 罅이 벌어져 있다.

共同宣言에 對한 美國側의 態度는 防衛를 위한 經濟的 軍事的 負擔引受에 對한 日本側의 意圖의 確認으로 보는데 主된 關心이 주어져 있으며 또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國內政治的 与件이나 中共·北傀를 비롯한 共產圈에 對한 對政治的인 姿勢에서 보아 日本의 이에 對한 態度는 美國의 期待에 對한 拒否的인 주저로 나타나고 있다.

美日安保體制下에서 自體의 防衛負擔에서도 가벼운 立場에서 高度經濟成長을 持續해온 日本의 基本政策의 目標은 美國의 勢力이 距細距

에서 後退하는 가운데 中共과 競争하여 그의 影響力을 牽制하면서 繼續하여 經濟的 實利를 追求하는데 第1次的인 関心이 두어져 있다. 따라서 日本으로서 는 니슨·佐藤共同宣言에 있어서 韓国の 安全이 日本의 그것에 對하여 緊要하다고 確認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을 韓國防衛를 爲한 經濟的 軍事的 責任에 있어서 美國의 代役을 한다는 軍事的인 共同利害에서 反應하기 보다는 可及的인 負擔없이 自國의 進出을 可能케 하기 위한 政治的 條件으로 消化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韓半島에 對한 政治的인 歷史的 利害를 美國과 더불어 公式的으로 確認한 것으로 消化하고자 한다.

日本은 歷史的으로 中國이나 蘇聯과 더불어 韓半島에 對한 利害國으로 登場하여 韓半島가 그의 敵對勢力에 依하여 支配되는 것을 拒否하고 有利한 條件에서는 韓半島의 支配를 前提로 自主·獨立을 主張하는 反面에 不利한 條件에서는 分割政策을 企圖하였다.

그러나 戰後에 있어서는 韓半島에 對한 日本의 立場은 美·蘇·中共은 달리 現實的으로 判異하게 不利한 條件에 있다.

美·蘇는 第2次大戰을 통하여 韓國分斷措置에 參與하여 韓國問題에 對한 決定的인 發言權의 所有國으로 되어 오고 中共은 韓國戰爭에 介入함으로써 休戰協定の 調印을 통하여 分斷措置에 參與하였으나 日本은 그런 參與機會가 없었다.

그 反面에 日本은 65年의 韓日協定の 締結을 통하여 美日間에 韓國에 對한 傳統的인 利害를 처음으로 確認한 셈이다.

따라서 韓半島에 對한 利害國으로서의 立場의 公式化에 美蘇中 보다는 뒤늦게 參與한 日本은 그의 傳統的인 利害의 守護를 爲하여

69年의 닉슨·佐藤共同宣言을 負擔의 支払보다도 權益守護의 面에서 韓半島에 對한 利害의 公式化로서 現實化하고자 하는 姿勢에 있다.

따라서 韓國에 對한 作戰地帶로서의 日本의 關心은 美國의 期待대로 韓國防衛를 爲하여 日本이 積極的인 協力關係를 發展시키겠다는 意味에서 보다도 日本 自體의 防衛를 爲한데 第1次的인 關心이 두어져 있다.

이러한 點에서 본다면 韓國에 對한 日本의 關心은 防衛協力에 對하여서 보다도 政治的으로는 韓半島에 있어서의 現狀維持 그리고 그것을 爲한 條件形成으로서 軍事的으로는 非武装化에 있을 것이다. 韓國防衛에 對한 日本의 態度에 對한 制約要因은 國內政治的 要因만이 아니라 對外政策的 要因이 있으며 이 兩者에 있어서 長期的인 眼目에서 본다면 後者에 對한 考慮가 더 優先視 된다.

日本의 國際關係 特히 對中共이나 對北僞에 對한 接近은 軍事的인 姿勢에 있는 것이 아니라 政治的 接近에 그 終極的인 目標을 두고 있다. 韓日關係에서 軍事的 關係가 附加된다는 것은 日本軍國主義의 非難을 繼續해 오고 있는 中共이나 北僞로 부터의 非難 要因을 增大시키며 特히 對中共 接近의 試圖에 對한 커다란 障害 要因으로써 日本에 對하여 作用하게 된다.

日本의 中立化에 政策目標을 두는 中共과 더불어 北僞는 日本의 軍國主義를 共同으로 非難하는 가운데 美日安保條約을 비롯하여 韓日協定の 廢棄를 主張하여 왔다. 日本은 自衛力을 增加하고 있으나 現在로서는 集團防衛를 爲한 戰略的 一環으로서의 軍事戰略에 基本姿勢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政治戰略에 優位를 두고 이에

대한 補完手段으로서의 価値賦与를 軍事戰略에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 韓半島의 狀況은 國際緊張의 緩和라는 外的인 狀況과는 對照的으로 如前히 緊張이 繼續되고 있다는 點에서 先行條件으로서의 軍事戰略에서 떠난 政治戰略이 있을 수 없는 與件에 있다.

따라서 日本은 우리 韓國과는 防衛協力을 爲한 政策, 戰略의 次元에서 判異한 立場에 있으며 그런 立場의 差異의 調整이 쉽사리 實現되리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美日間의 利害對立이 增大되어 日本이 그의 國力の 成長에 따라서 對美關係에 있어서 外交의 自律性의 幅을 增大시키고자 하는 努力이 增加될 수 밖에 없으므로 日本의 立場은 決코 對美關係의 延長으로서의 韓日關係라는 關係次元에서 離脫하여 對美關係와 對韓關係를 漸次的으로 分離하여 獨自的인 次元에서 評價하려 할것인바 그 具體的인 時期는 日本이 그 安保를 爲하여 對美紐帶에서 떠나 獨自的인 安保政策을 追求할 것이냐의 判가름을 하게 되는 時期이나, 따라서 우리는 이런 時期에 日本이 媮하기 以前에 우리의 對美紐帶를 通하여 또는 그 延長線上에서의 韓美日의 三角關係의 基本的인 틀이 破壞되기 以前에 政策 戰略面에서의 韓美日의 三國間의 差異를 調整하여 立場의 有機的인 接近을 爲한 外交的인 努力이 앞서야 한다.

둘째로 提起하여야 할 軍事協力에 關한 檢討의 次元은 「作戰」에 關한 것이다.

作戰上의 防衛協力問題는 具體的으로 美軍의 自由發進에 關한 問題와 自衛隊의 海外派兵에 關한 問題로 大別된다.

一朝有事時 北傀가 南侵하였을 境遇에 美軍의 作戰을 爲하여서는 對日事前協議를 통한 美軍의 自由發進의 許容이 不可欠의 先行條件 이 된다. 오끼나와 基地의 價值는 二重的이다. 그 첫째는 抑制 價值이며 둘째는 一朝有事時의 作戰을 爲한 中繼基地로서의 價值가 그것이다.

오끼나와가 지니는 이러한 基地로서의 二重的 價值에서 본다면 오끼나와에 많은 美軍이 駐屯한다는 것도 重要하거니와 이것에 못지않게 重要한 것은 一朝有事時 美軍이 韓半島나 極東에서 平素에 象徴的인 兵力이 남아 있는 限이 있더라도 그 基地를 利用하여 自由로이 兵力을 展開할 수 있는 機能의 維持가 못지않게 重要하다. 따라서 美國은 69年의 닉슨·佐藤共同宣言에서 佐藤과 美軍이 美日兩國의 相互의 安全保障에 必要한 軍事施設과 區域을 오끼나와에 保有할 것에 合意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 韓國의 境遇에 北傀에 對한 中共의 派兵은 別個問題로 치더라도 其他의 어떤 形態에 依한 中共의 對北傀 支援의 可能性이 있는 限 우리의 防衛體制를 支援 補強하기 爲한 美軍의 存在가 어떠한 形式으로도 남아 있는 것이 보다 所望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過去의 韓國戰爭이 南韓에서의 美軍의 不在事實이 하나의 커다란 要因이었다고 한다면 駐韓美軍의 存在와는 別個로 오끼나와에 美軍의 基地機能이 維持되는 것이 極東이나 韓國의 防衛를 爲하여 抑制機能을 다하게 된다.

美國이 닉슨·독트린에 依하여 海外美軍을 減縮시키고 있는 오늘날 오끼나와는 美軍의 힘을 集約化할 수 있는, 唯一의 基地이다.

따라서 오키나와는 韓國防衛를 爲하여서도 基地의 面積의 크기나 駐屯兵力의 數에 못지않게 적어도 象徴적인 機能이나마 남겨두는 것이 必要하다.

平素의 基地機能의 象徴적인 維持를 통한 抑制機能과 一朝有事時의 作戰의 展開를 爲한 中繼基地로서의 機能이 重要하다는 것이다.

오키나와가 지니는 이 두가지의 機能 即 抑制機能과 中繼機能에서 前者는 오키나와 返還協定에 따르는 美日間の 合意事項이며 後者는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事前協議事項에 屬한다.

그런데 要는 韓國防衛를 爲하여 一朝 有事時 日本이 事前協議에 依하여 美軍의 自由發進을 許容할 것이냐에 問題가 있다.

只今 現在로써 이에 對한 日本의 態度는 断定하기 어려운 點이 많다. 美日共同宣言과 더불어 같이 한 美國 National Press Club 에서의 演說에서 佐藤는 「韓國에 武力攻擊이 發生하여 이에 對処하기 爲하여 日本國內의 施設・區域을 戰鬪作戰行動의 發進基地로서 使用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事態가 發生하였을 境遇에 事前協議에 對하여 積極的이며 迅速한 態度를 決定할 方針」이라는 것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議會가 「積極的이며 迅速한 態度決定」이란 事前協議에서 無條件 自由發進을 美軍에게 許容한다는 뜻이냐에 關하여 質問한데 對하여 日本政府側의 答弁은 그것이 危急한 事態이므로 可否를 決定을 爲하여 積極的이며 迅速한 態度를 取할것을 意味한다고 하였다. 이 政府側의 答弁은 事前協議가 반드시 美軍에 對한 自由發進의 許容을 保障하는 것이 아님을 意味한다.

다음에 自衛隊의 海外派兵問題는 어떠한가? 日本 新憲法 第9条에 「國權의 發動인 戰爭과 武力에 依한 威脅 또는 武力行使는 國際紛爭을 解決하는 手段」으로서 拋棄할 것을 宣稱하고 있다.

그러나 内外情勢의 變動에 따라 防衛論爭의 焦點이 轉移하는 가운데 憲法 第9条에 對한 政府側의 公式見解가 달라졌음은 이미 몇년전의 일이다. 初期의 防衛論爭의 中心은 自衛隊의 違憲性 與否에 있었다.

그러나 이미 몇년전부터 自衛隊의 違憲性 與否問題는 防衛論爭에서 全히 問題視되지 않고 있으며 그 代身 自衛隊의 海外派兵問題에 그 焦點이 두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日本政府는 이미 自衛隊의 海外 「派兵」과 「派遣」을 區別하여 軍事目的을 爲한 海外派兵을 違憲이므로 不可能하나 UN의 平和機能의 一環으로서 非軍事的 따라서 政治的인 平和目的을 爲한 海外派兵을 違憲이 아니라는 公式見解를 表現해 오던中 近者에 及서는 日本人의 生命과 財産의 保護를 爲한 自衛隊의 海外派兵도 可能하다고 그 見解를 表明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지금 現在의 狀況에서 본다면 一朝有事時 韓國戰爭의 境遇에 日本이 軍事的으로 介入할 可能性은 極히 적다.

勿論 비록 日本이 軍事的 介入의 意思가 있다고 하더라도 最大限度 地上軍의 介入은 決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日本의 韓半島에 對한 軍事的介入의 可能性이 적다는 것은 自衛隊의 介入이 極東에 있어서 새로운 紛爭을 結果적으로 惹起시키는 要因이 될뿐더러 日本이 또한 그런 紛爭에 휘말려들것을 牽制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不拘하고 自衛隊의 派遣에 對한 日本 政府側의 伸縮的인 態度는 美日安保體制의 將來的인 變化可能性에 따르는 日本의 立場이 事前 未定立에 基因할 것이다.

日本이 軍事的인 責任에서 外面한 채 經濟大國으로서 實利主義를 追求하는 限에 있어서 우리는 日本에 對한 直接的인 防衛協力を 期待하기 어렵다.

따라서 日本의 國際社會에서의 責任意識은 經濟技術援助의 提供과 더불어 오끼나와에 美軍基地의 維持를 許容하여 美軍의 抑制力에 依하여 間接的으로 防衛協力에 寄與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오끼나와의 抑制機能外에 一朝有事時의 中繼基地로서의 美軍의 自由發進을 爲한 機能에는 設使 日本이 事前協議에서 應한다 하더라도 附帶條件이 다르기 쉽다.

세째로 軍事協力에서 論하여야 할 問題는 防衛産業에 있어서의 協力에 關한 問題이다.

日本의 對美 防衛協力이 美日安保條約을 통한 紐帶와 基地提供에 있다고 한다면 그의 韓國에 對한 防衛協力은 非軍事的인 側面에 있어서의 經濟援助를 통한 間接的인 接近에 있다.

따라서 防衛産業面에서 본다면 分業이나 其他의 形態에 依한 直接的인 協力關係의 設定보다도 韓國을 그의 武器輸出市場으로 보는 面이 앞서고 있다.

現在 日本이 가지고 있는 武器輸出三原則 即 共產圈・UN決議에 依하여 武器輸出이 禁止된 國家 및 紛爭當事國이나 그 憂慮가 있는 國家에 對해서는 武器輸出을 禁止한다는 原則에 對한 態度가

마치 防衛論爭의 中心課題에 對한 態度에서 보여온 것과 같은 伸縮的인 解辭態度로 漸次的으로 變化할 可能性이 많다.

이미 日本政府는 「正當한 目的과 限度를 넘지 않는 武器輸出의 非違憲法을 示唆하고 있음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다.

日本은 中間 數次에 걸친 自衛力整備計劃의 過程을 通하여 軍部와 産業界의 關係가 對象企業의 集中化 傾向에 依하여 密接化一路를 걸어왔다.

그러나 現在에 있어 日本의 工業生産에서 占하는 防衛生産의 比率은 0.4 ~ 0.5 %를 前後하고 있다. 이 數値는 日本經濟가 防衛産業에 依存하고 있다느니 보다도 防衛産業이 既存의 一般産業속에서 그 育成이 試圖되어 왔음을 意味한다.

그리고 防衛生産속에서 占하는 品目別 比率을 보면 69年 現在 武器彈藥이 第一位로서 99.3 % 航空機가 第2位로서 58.5 %, 船舶이 第三位로서 2.5 %, 石油製品이 第四位로서 0.9 %, 電氣通信機器가 第五位로서 0.9 %, 그리고 車輛이 第六位로 0.3%의 順位로 되어 있다.

이 두가지의 事實中에서 첫째의 事實 即 工業生産에서 占하는 防衛生産의 比率이 尙尙 적다는 것은 日本의 防衛産業이 앞으로 더욱 加速化할 것을 意味하며 또 둘째의 事實 即 防衛生産 그 自体에서 적은 比率을 占하는 品目이 將次에 더욱 큰 比率을 占할 可能性을 示唆하는 反面에 보다 큰 比率 特히 近100 %에 가까운 比率을 占하고 있는 品目은 低比率의 品目보다도 斜陽企業化될 可能性이 더 많은 것으로 理解된다.

따라서 이러한 評價가 正當하다면 他品目보다도 相對的으로 早期 斜陽企業化될 可能性이 많은 品目은 99.3%를 占하는 武器彈藥일 것으로 判斷된다.

따라서 이러한 日本의 防衛産業의 實情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장 直接的인 防衛産業의 協力으로 日本에 對하여 追求할 수 있는 條件의 品目은 武器와 彈藥일 것이다. 其他品目에서의 協力追求는 相對的으로 遼遠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武器와 彈藥에 있어서 防衛生産에서의 協力の 追求外에 가장 基本的인 것으로서는 製鐵工業에 關한 것이다.

現在 日本은 우리나라의 製鐵工業에 對한 借款供與를 우리의 自主防衛體制의 基礎強化를 促進하기 爲한 것이라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即 經濟援助를 통한 軍事援助로서의 機能化에 日本의 立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 指摘된 日本의 防衛産業의 實情과 經濟援助를 통한 間接的인 防衛協力の 追求에 對한 日本의 立場을 우리에게 有利하도록 活用하여야 한다.



結 論

日本の 軍事政策의 方向은 国内政治의 右傾化, 中・蘇戰爭, 韓國戰爭의 再發, 對美關係의 極적인 惡化와 같은 事態가 展開되지 않는 現在 軍事力의 漸增이 될 것이고 軍事大國化는 實現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 軍事大國化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그리고 國民輿論과 意識을 刺戟하는 위와 같은 衝動的 事態가 일어나지 않는한 日本軍國主義 부활이란 그리 簡單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美國의 代役을 담당할 程度의 對外的인 軍事的 役割의 遂行을 拒否하고 있는 日本과 韓國과의 軍事協力關係의 可能性과 限界性에 있어서 오끼나와基地의 返還에 즈음한 1969年 11月의 「닉슨」, 佐藤共同聲明을 通하여 日本의 「韓國의 安全이 日本스스로의 安全에 있어 緊要하다」라고 申明하였던 態度는 空轉을 거듭하고 있다는 印象을 깊게 해주고 있다.

美國에 對한 配慮와 韓國과의 既存의 政治 및 經濟關係를 감안하여 日本은 韓國에 對한 外交的 支持를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으나 韓國에서의 軍事紛爭再發時 惹起될 수 있는 国内政治에 對한 壓力, 軍事政策의 方向轉換의 必要性 및 이에 따른 經濟的 負擔을 考慮하여 韓半島狀況의 現狀維持와 緊張緩和를 바라고 있다고 할수 있다.

即 日本은 中・蘇에 對한 軍事的 緩衝地帶로서의 韓半島의 有用

성을 절감하고 韓國의 健在를 「緊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은 憲法의 制約을 包含한 國內政治的 問題, 中·蘇와 對決可能性, 制限된 軍事能力 및 經濟的 負擔을 考慮하여, 有事時 韓國에 對한 直接的인 軍事的인 寄與는 積極 回避하려는 態度를 堅持할 것으로 評價 된다.

따라서 日本의 韓國安保에 對하여 期待할 수 있는 役割은 美軍의 韓半島에서의 軍事作戰을 위한 軍事基地의 供與가 그 限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韓國의 安保를 위해 友邦國과의 友好關係와 防衛條約 그리고 非敵對的 共產國家와의 關係改善도 重要하다. 그러나 그나라의 國家安保를 外國과의 條約文에만 매달리게 한 國民에게는 언제나 試鍊이 닦쳐온다는 歷史的 敎訓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國家安保는 同盟이나 條約等에 偏重된 不確實性위에 두어서는 안되며 또 우리의 自主獨立과 平和를 누리기 위해서는 外部의 어떠한 挑戰에도 對應할 수 있는 國防力을 갖추고 있어서 敵이 함부로 넘겨다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萬若 不幸하게도 戰爭이 勃發하면 効果的인 國防力 運用으로 政治的目標을 迅速하게 達成해야 할 것이다.

歷史는 우리들에게 한 民族의 興亡은 어떤 挑戰에 對하여 그 民族이 勇氣와 智慧로서 어떻게 對應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至今 우리들은 衆智를 모아 우리民族의 永遠

한 安全과 繁榮의 길을 摸索하고 實踐하기 위하여 總力을 安保에 集中시켜야 한다는 嚴肅한 순간에 있는 것이다.

現時點에 있어서 國內外 諸般情勢를 直視하고 이에 對備함으로써 後患을 除去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強調해 두는 것이다.

